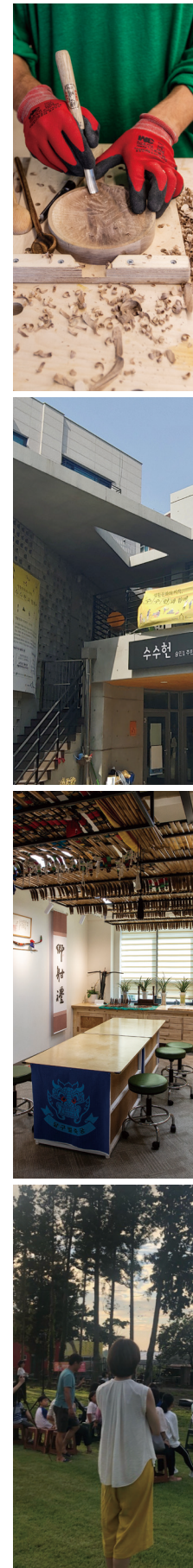




생활SOC 주민참여 선도사례집 3편 살고 있는 동네를 살고 싶은 동네로



생활SOC 주민참여 선도사례집 3편

# 살고 있는 동네를 살고 싶은 동네로

생활SOC 주민참여 선도사례집 3편

살고 있는  
동네를  
살고 싶은  
동네로



Contents<sup>목차</sup>



005

발간사

006

들어가며

008

**PART 01**

주민참여형 생활SOC  
적극 행정과 주민의 실천력으로 만들어낸 생활SOC

010

**CASE 01** | 은평구청소년문화의집 신나는애프터센터

016

**CASE 02** | 울산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

022

**CASE 03** | 푸른마을공동체센터

028

**CASE 04** | 국공립 연천어린이집

034

**CASE 05** | 버들마을스토리 공감

040

**CASE 06** | 봄의마을

046

**CASE 07** | 제주 누리터



052

**PART 02**

생활SOC와 사회적경제  
주민 자율 운영으로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룬다

054

**CASE 08** | 뫼골문화회관

060

**CASE 09** | 성수나눔공유센터

066

**CASE 10** | 위스테이별내 커뮤니티센터

072

**CASE 11** | 수수헌

076

**CASE 12** | 연암서당골 문화센터

082

생활SOC 우수사례  
생활 썩(SOC)! 행복 썩!

084

**CASE 13** | 온마을아이맘센터 아동 실내스포츠 체험시설

**CASE 14** | 과천시민회관 '통합수중운동교실'

085

**CASE 15** | 달서다문화가족 작은도서관

**CASE 16** | 내집앞 맘(Mom)편한 돌봄교실&내안애(愛) 돌봄교실

086

**CASE 17** | 장안창작마당

**CASE 18** | 건강힐링문화관

087

**CASE 19** | 생활문화센터 하다



## “생활 쏘(SOC)! 행복 쏘!”

생활SOC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편의시설을  
의미합니다

발간사

## 모두가 행복한 삶터, 생활 쏘(SOC)! 행복 속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구윤철입니다.

2019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세 번째 선도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사례집에는 서울에서 제주까지, 문화회관에서 아파트 커뮤니티센터까지, “우리 동네 생활SOC”를 만들어간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마을교육과 만남의 장이 된 ‘울산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 입주민이 함께 만들어간 ‘위스데이별내 커뮤니티센터’,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운영하는 ‘외골문화회관’, 들꽃처럼 다채롭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고 합니다.

마을 폐교를 살리기 위해 교육청 문을 두드린 청년, 아파트 이웃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을 모은 입주민들, 폐자원으로 가방을 만들어 마을문화회관을 돕는 주민들,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생활SOC정책은 사는 곳 가까이에 주민이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부는 주민 스스로 “마을 SOC”를 꾸민 소중한 사례를 찾아내고, 전국 각지에 퍼져나가도록 애쓰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례집이 씨앗이 되어 ‘지속가능한 생활SOC 운영’이라는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제작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11월

국무조정실장(생활SOC추진단장)

구윤철



생활SOC는 사는 곳 가까이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행복의 거점이다.  
생활SOC의 지속가능을 확보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조성부터  
운영까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편 사례집은 생활SOC의 지속가능한 실천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다양한 주민참여  
방식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여기에 수록된 12건의 사례들은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발굴한 사례들로서  
기초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2차례의 전문가 평가회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신나는애프터센터’, ‘외골문화회관’ 등은 활발한 지역활동을 전개하던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주민들과 함께 지역현안 해소 노력을 하면서 활동의 거점이 될 공간의  
필요를 행정에 건의한 사례들이다.  
‘울산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는 폐교시설의 주민공동이용시설화에 대한 마을활동가  
주민의 바람이 교육청의 적극행정과 만나 이루어진 것으로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들의 높은 만족도와 청년들의 정주의식까지 형성시키는 성과를 놓고 있다.  
‘성수나눔공유센터’, ‘수수헌’, ‘연암서당골 문화센터’ 등은 주민운영자가  
사회적경제조직을 설립하고, 지역자원의 적극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에도  
기여하고 있는 경우들로 시설의 지속가능을 기대할 수 있는 시사점이 있다.  
‘위스테이별내 커뮤니티센터’는 국내 최초 아파트형 마을공동체가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입주민이 직접 커뮤니티 시설들을 운영하면서 48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창출한 사례이다. 내가 거주하는 공간에서 쉬고 일하는 이상적인 공간을 조성한  
경우이다.

소개된 사례들의 공통된 특징은 주민 주도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시설 필요성을  
행정에 先 건의하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행정과 협업하여 하드웨어 건립뿐만 아니라 공간의 콘텐츠를 채워 나가는 데 있어  
지속가능을 담보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이 특정 에피소드로 회자되지 않고 생활SOC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역사회에 확산되는 것이 정책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사례집이 지역행정, 유관기관, 그리고 주민(조직)이 생활SOC를 조성하고  
지속가능하도록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생활SOC 주민참여 선도사례(12건)

|           | 시설명                        | 주요 특징  |
|-----------|----------------------------|--|
| 주민참여      | 신나는애프터센터<br>(서울 은평구)       | ○ 청소년 공간조성을 통해 지역사회 현안 해결<br>○ 청소년 운영위가 공간 이용 모니터링 및 프로그램 직접 기획·운영                   |
|           | 울산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br>(울산 울주군)  | ○ 마을활동가가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br>○ 주민들이 프로그램 기획에 참여, 만족도 높은 마을교육의 거점                         |
|           | 푸른마을공동체센터<br>(광주 동구)       | ○ 주민이 자발적으로 ‘지속가능디자인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시설조성<br>○ 시설을 중심으로 지역 전반 사회경제조직 활성화                 |
|           | 국공립 연천어린이집<br>(경기 연천군)     | ○ 사업 초기부터 운영자가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br>○ 기획단계에 운영자의 어린이집 지향점 및 아이디어 적극 반영                  |
|           | 버들마을스토리 공감<br>(서울 구로구)     | ○ 계획단계 참여 ‘주민협의체’가 ‘주민공동체운영회’조직, 운영관리<br>○ 지역자원 연계 프로그램 기획으로 시설의 지속가능 운영 실천          |
|           | 봄의마을<br>(충남 서천군)           | ○ 지역사회 단체를 운영주체로 공모·선정, 운영 지속화 확보<br>○ 시설 복합화로 가족구성원 모두 이용의 편리함, 운영 효율성 제고           |
|           | 제주 누리터<br>(제주시)            | ○ 주민조직이 폐교 활용, 공적 서비스 제공<br>○ 유료 강의 및 지역연계 수업 등으로 지속가능성 노력                           |
| 사회적<br>경제 | 외골문화회관<br>(인천 부평구)         | ○ 지역 풀뿌리조직들의 마을공동체 활동이 시설 조성으로 연결<br>○ 시설을 중심으로 지역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에 기여                |
|           | 성수나눔공유센터<br>(서울 성동구)       | ○ 공간기획단, 스스로 지속가능한 공간 활용을 위한 역량 강화 노력<br>○ 시설 중심으로 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와 상생 발전              |
|           | 위스테이별내 커뮤니티센터<br>(경기 남양주시) | ○ 국내 최초 아파트형 커뮤니티 공간조성 및 마을공동체 형성<br>○ 주택은 사는 것(Buying)이 아닌 사는 것(Living)이란 새로운 가치 제시 |
|           | 수수헌<br>(서울 종로구)            | ○ 공간기획단이 CRC와 마을운영단으로 발전<br>○ 마을운영단이 공간을 운영하는 주민자치공간                                 |
|           | 연암서당골 문화센터<br>(대구 북구)      | ○ 행정 내부 협력시스템 내실화로 시설의 다양한 필요내용을 지원<br>○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



적극 행정과 주민의 실천력으로  
만들어낸 생활SOC



## PART 01

# 주민참여형 생활SOC

- 01 은평구청소년문화의집 신나는애프터센터
- 02 울산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
- 03 푸른마을공동체센터
- 04 국공립 연천어린이집
- 05 버들마을스토리 공감
- 06 봄의마을
- 07 제주 누리터



CASE 1

# 은평구청소년문화의집 신나는애프터센터

주인과 청소년, 행정이 함께 지역 문제를 해결하다

## Specification

-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6길 7
- **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연면적 894.43㎡)
- **사업기간** | 2011~2012년(2013.3.23. 개관)
- **총사업비** | 43억 3,600만원  
(국비 2억\*, 시비 25억, 구비 16억 3,600만원)  
\*행정안전부, '희망마을만들기' 사업
- **운영비** | 약 4억 8,500만원(구비, 2021년 기준)
- **시설소유** | 은평구
- **운영주체** | (사)열린시민사회연합
- **연락처** | 02-353-7910



키워드  
**지역 풀뿌리조직 네트워크, 민관협력, 청소년 자치공간**



운영기간  
**9년**



(사)열린시민사회연합 은평시민회 지역활동  
**20년 이상**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삼' 구성원  
**11명**



신나는애프터센터의 활동사례집.



(왼쪽부터) 이미경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장, 장미정 밴델지역아동센터장, 이현 청소년운영위원장, 강양숙 신나는애프터센터장.

은평구는 초, 중, 고등학교가 67개로 청소년 비율이 높은 반면 학교수에 비해 방과 후 활동이나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은평구의 첫 구립 청소년시설로 조성된 청소년문화의집 신나는애프터센터가 갖는 의미는 크다. 지역 내 청소년들의 40%가 무상급식이 필요하거나 가정 내 돌봄이 미흡한 상태에서 지역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학교 수업이 끝나고 인근 공터나 유흥가 주변 놀이터, 빈 건물 등에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는 모습을 자주 보곤 했어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학교와 집 외에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을 보면 너무 속상했죠.” (이미경, 신나는애프터센터 기획단 참여 주민, (현)구립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장)

거리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학부모와 주민이 한 명 두 명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은평지역사회네트워크(은지네)의 활동가들이 먼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은평구의 주민, 시민단체, 구청의 공무원, 그리고 청소년 당사자까지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만들자는 공동의 꿈을 그려나갈 수 있었다. 신나는애프터센터는 그 꿈을 현실로 이룬 공간이다. 2013년 3월 23일 개관하여 9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은 지역을 대표하는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이자 아지트로 자리매김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마을에서 자유롭게 꿈꾸고 자기 삶의 주인이자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든든한 발판이 되어주고 있다.

### 주민들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신나는애프터사업’

신나는애프터센터가 건립되는 데는 주민들의 역할이 컸다.

특히 은지네가 주도적으로 나섰다. 은지네는 은평지역 내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던 15개 단체가 연대하여 만든 네트워크로 2006년부터 지역사회 현안을 고민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해왔다. 은지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가 교육환경 개선이었다. 지역 청소년을 위한 교육환경을 고민하던 은지네에서는 주민, 청소년, 지역아동센터장, 마을활동가 등과 함께 지역청소년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했고 논의 끝에 ‘아동, 청소년 교육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 공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공간 마련은 주민들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다. 은지네는 청소년공간의 필요성을 행정에 건의했고 그렇게 신나는애프터센터 사업의 출발점이 그려졌다.

“응암동에 청소년수련관이 있긴 했어요. 하지만 산중턱에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졌어요. 또 시립시설이라 우리 지역 청소년에 맞춘 프로그램도 부족했고요. 그 외에 구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은 없었어요. 청소년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에 우리 지역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행정에 제안하게 된 거예요.”(강양숙, 신나는애프터센터장)

행정이 주민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청소년공간 조성사업의 싹이 트게 되었다. 2010년 11월, 은지네, 지역주민, 청소년, 구청 공무원, 지역아동센터, 중·고등학교 교사, 교육 전문가, 청소년 전문가 등이 모인 ‘신나는애프터사업 기획단’이 만들어졌다. 기획단의 미션은 ‘지역에 맞는 청소년공간 만들기’. 이들은 매월 정기회의를 열고 그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어 공간 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을 청취했다.

“청소년을 위한 공간만큼 아동을 위한 공간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대표적인 아동돌봄 시설인 지역아동센터의 환경문제도 지적되었고요. 주로 저소득층 아동이 많이 사용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아동 돌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긴 하지만, 공간이 협소하거나 환경이 열악하거든요.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었죠. 그때 청소년공간 조성사업이 시작되면서 저희도 이 논의에 함께하게 된 거죠.”(장미정, 뽕엘지역아동센터장)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가 많아 혼자 있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이제는 돌봄시설이 지역의 모든 아동과 청소년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어요.”(이미경,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장)

기획단을 중심으로 1년 반 동안 의견을 모은 결과 청소년공간 조성사업과 지역아동센터 공간지원 사업이 주요 사업으로 병행되면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여성가족부 등록 기관인 청소년문화의집과 보건복지부 지원기관인 지역아동센터를 같은 건물에 조성하자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서로 다른

Interview

“센터와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서로를 존중합니다”  
이현 청소년운영위원회 대표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나요?**  
중학교 1학년 때 신나는애프터센터에서 진행한 ‘신나는 상상’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센터를 알게 되었어요. 마을 문제를 발굴하고 센터 운영에도 참여하고 싶어 청소년운영위원회로 활동한 지 현재 4년째입니다.

**신나는애프터센터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가장 큰 장점을 꼽아주신다면?**  
센터운영위원회와 수평적인 관계에서 주도적으로 청소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공간 이용 개선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는 점이지. 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해주어 실제 운영이나 사업에 반영해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청소년을 위한 공간답게 계단도 활기차게 조성됐다.

아동 및 청소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한 은평의 시민과 행정의 노력으로 신나는애프터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

행정부서가 담당하는 시설이 한 건물에 있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아동과 청소년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만 집중했어요. 아동과 청소년이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건립할 수 있는 건 ‘청소년문화의집’이고,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은 ‘지역아동센터’이니 두 시설을 한 건물에 조성하자는 의견이 자연스럽게 나왔죠. 지역아동센터가 청소년문화의집을 공유하게 됨으로써 예전보다 쾌적한 환경을 아동들



기타 동아리 활동 모습.

로 지원한다. 청소년시설이 청소년시설로서의 의무와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행정이 처음부터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청소년시설은 일반적으로 정부 지원이 매우 적기에 스스로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워요.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라는 가치를 유지하고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이호선 과장)

센터 사업을 더 잘 지원할 수 있도록 구의회와 협력하여 관련 조례 2건과 규칙 1건을 제정하기도 했다. 은평구청은 교육지원과, 가정복지과, 청소년복지팀으로 나뉘어 있던 부서를 교육복지과로 통합하여 센터 담당 부서로 개편하고 청소년 교육 전문 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시스템도 개선했다. 행정과 센터가 아동 및 청소년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는 공통된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현재 센터 관련 부서는 시민교육과 청소년지원팀이다). 이러한 공간을 맡아 운영할 위탁업체로 행정은 지역 풀뿌리 시민조직 (사)열린시민사회연합을 선정했다. 1998년 창립 이래 시민교육, 주민자치, 자원봉사 등의 활동으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열린시민사회연합은 은평시민회에 운영을 맡겼다. 은평구에서 20년 넘게 활동해온 은평시민회가 현재 센터를 운영·관리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성장을 응원하겠다는 센터의 비전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만한 지역의 오랜 시민단체가 운영을 맡으면서 센터는 순조롭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센터는 ‘청소년 자치활동과 성장’이라는 비전을 중심에 두고 법인 운영위원회, 센터 운영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청소년들의 필요에 따라 만든 노래방.

에게 제공할 수도 있는 셈이었고요.”(이호선, 은평구 시민교육과 과장)

비전을 공유한 행정과 센터의 ‘굿 파트너십’

신나는애프터센터는 건물 조성부터 운영까지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다. 건물 조성에 쓰인 사업비 43억 3,600만 원 중 25억을 시비, 16억

3,600만원을 구비로 지원했다. 나머지 2억은 행정안전부 예산 지원으로 충당했다. 공간유지비와 운영관리비, 인건비 등 운영비도 100% 구비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센터 운영위원회는 중장기 계획수립 및 센터 활동을 점검하는 역할을 하며, 15명 내외의 은평 시민으로 구성된다. 2021년에는 교사, 학부모, 교육복지전문가, 인권전문가, 주민, 청소년운영위원회 대표, 센터장 등 13명으로 구성되어, 연간사업계획, 사업 결과 점검, 주요활동 방향 및 중장기 계획수립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청소년운영위원회(이하 청운위)는 청소년 기관에서는 필히 운영해야 하는 법적 운영위원회다. 센터의 청소년운영위원회는 9세부터 24세 청소년 중심으로 매해 새로운 구성원을 선발한다. 이들은 청소년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센터 사업을 모니터링 하며, 센터직원과 함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여한다. 각 운영위원회는 정기 회의를 갖고 활동하며 연간 1회 운영주체 워크숍을 열어 중장기 계획과 사업 방향을 검토한다. 이렇게 세부까지 조직화된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비전이 흔들리지 않고 운영될 수 있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지역의 미래인 청소년이 만들어가는 공간

센터는 설립 계획대로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응암



센터 운영에 중요 역할을 하는 청삼 '청소년들의 흥상'의 줄임말이다.

구산역 주변, 주거 밀집 지역 한가운데 자리했다. 단독주택 2채를 허문 자리에 세워진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다. 지하에는 밴드실, 댄스실, 노래방이 있다. 1층 '만나'는 카페처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2층은 센터지기 사무실과 소모임공간 '꿈나눔', 미디어공간 '썬나눔', 다목적실 '마음나눔'이 있다. 4층 '너른터'는 공연, 강연 등 다목적으로 쓰이는 대강당이다. 3층은 뽕엘지역아동센터가 사용한다. 센터는 9세부터 24세까지 은평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건물 조성 과정에서 눈에 띄는 점은 건물 기획 단계부터 설계 과정까지 청소년들이 모두 참여했다는 점이다. 위치 선정부터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되었고, 2017년에는 청소년들의 요구로 1층에 원래 있던 마을인문학도서관이 열린 공간



Interview

“성공적인 시설이 되려면 ‘이용자 중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호선 은평구 시민교육과 과장

청소년시설을 계획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점은 무엇일까요?

청소년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청소년이 어떤 걸 하고 싶고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해서 그 욕구를 공간에 담고 사업 내용으로 풀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센터 설립 이후 지역의 긍정적인 변화를 꼽아주신다면?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청소년 자치'에 대한 인식이 지역사회에서 높아졌어요. 청소년들의 자치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합의도 생긴 것 같습니다.

'만나'로 리모델링되기도 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센터의 대표적 청소년 활동 중 하나이자 센터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이름은 청삼. '청소년들의 흥상'의 줄임말로 1기 청운위가 직접 지었다. 청삼은 올해로 9기를 맞았다. 운영팀, 기획팀, 지원팀으로 구성된 청삼은 센터의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행사 등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며 공간이 청소년을 위해 잘 활용되는지 모니터링하고 개선사항을 센터에 건의한다.

“1층 도서관을 카페와 같은 공간으로 리모델링한 것도 청운위에서 공간을 이용하던 청소년들의 의견을 받아서 제안한 거였어요. 더 많은 의견을 모으고자 1층에는 건의함도 만들었고요. 무늬만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아니라 청삼은 ‘진짜’



이곳을 이용하는 청소년 누구나 센터의 운영에 의견을 낼 수 있다.

운영위원회죠. 센터는 청삼의 건의사항을 귀 기울여 듣고 청삼의 활동에 간섭하지 않아요.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하기에 너무 좋은 공간이에요.”(이현, 청소년운영위원장)  
“센터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청소년이 직접 기획에 참여하고 운영한다고 볼 수 있어요. 사업의 큰 틀은 센터지기들이 정하지만, 세부 내용은 ‘기획단’을 구성하고 기획단 중심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획단을 운영하며 사업의 목적과 목표를 청소년이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지원하고 청소년들은 목적에 따라 세부 내용을 기획하고 실행합니다. 센터지기과 외부 전문가들은 30% 정도 도움을 줍니다. 70%는 청소년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어요.”(강양숙 센터장)

청소년들의 성장에 날개를 달아주는 곳

센터는 설립 초기부터 '청소년 자치활동과 성장'이라는 운영기조를 유지한 덕분에 백화점 문화센터와 같은 청소년시설이 아니라 지역 청소년들이 정말로 원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다. 덕분에 지역 아이들은 이곳을 카페처럼 들러 공부도 하고, 편하게 쉬기도 한다. 동아리 활동도 활발하여 지난 9년 동안 노래, 춤, 공연 등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 모임이 만들어졌다. 또한 '은평청소년정책추진단', '은평아동청소년네트워크', '은평청소년참여자치캠프', '사회참여프로젝트' 등을 통해 청소년의 권리가 확장되고 자치력이 커질 수 있도록 조력자가 되어주는 것도 센터의 역할이다. 사업 운영비는 거의 전부를 구비로 지원하며 그 외 센터에서 자체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기도 하다.

청소년들의 자치활동이 확장됨에 따라 센터의 비전은 2018년 '청소년이 주체성을 가진 자치활동의 플랫폼'으로 구체화되었다. “우리 센터의 가치는 청소년 자치 플랫폼이에요. 은평지역 청소년들이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찾고,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활동하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센터도 행정도, 은평 어른들도 연대하여 청소년을 돕고 있습니다.”(강양숙 센터장)  
더 다양한 방식으로 청소년이 원하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해 나갈 신나는애프터센터. 더 많은 아동, 청소년들에게 성장의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언제까지고 지역에 남아 있길 바란다.



# 울산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

마을교육활동가와 교육청이 함께 여는 마을교육의 새로운 장(場)

## Specification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석남로 832
- **규모** | 지상 2층(대지 10,130㎡, 건물연면적 2,431.36㎡)
- **사업기간** | 2019.10.~2020.9.(2020.10. 개관)
- **총사업비** | 21억 6,000여 만원(교육청)
- **운영비** | 9억 7,300만원(교육청)
- **시설소유** | 울산광역시 교육청
- **운영주체** | 울산광역시 교육청
- **연락처** | 052-262-7600



키워드  
**폐교시설, 마을교육활동가, 민·관·학 협업**



주제별 공간 구성

**10**개



학교연계 프로그램

**12**개 (연간 참여 학생 15,000여 명)



마을활동가 임기제 채용

**1**명

마을교사

**20**명



울산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가 있는 상북면은 2016년 길천초등학교, 향산초등학교, 궁근정초등학교 등 세 개의 초등학교가 통·폐합되면서 상북초등학교가 새롭게 신설되었다. 사라진 학교에 대한 추억이 있는 주민들을 위해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폐교 중 한 곳인 궁근정초등학교에 학생들을 위한 미술체험 및 작품 전시를 중심으로 하는 '다담은 갤러리'를 오픈했다. 그러나 조성과정에서 주민들과 소통이 거의 없이 오픈한 갤러리여서인지 찾는 주민은 많지 않았다.

한편, 함께 모여 아이들의 교육과 마을공동체 활동을 해온 상북면의 주민들과 마을교육활동가들에게는 '거점공간'이 절실했다. 매번 공간을 찾아 면사무소 회의실, 그것도 아니면 카페나 누군가의 집을 전전하는 일에 피로감을 느끼던 차였다. 심지어 이곳은 카페가 많은 도시도 아니었다. 이러한 주민들의 지역과 교육에 대한 목소리에 대해 2018년 울산교육청은 "따뜻한 메아리"로 응답하였다. 이후 다담은 갤러리를 지역의 인문 및 자연 환경적인 특성을 활용한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활동과 지역 청소년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청소년 자치배움터이자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그런 논의 끝에 문을 연 곳이 바로 울산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다. 그렇게 상북면의 80년 역사의 폐교(궁근정초등학교)는 이제 울주군뿐만 아니라 울산 전역의 마을교육공동체를 아우르는 거점센터로 새롭게 태어났다.

## 마을교육활동가와 주민, 교육청이 함께 만든 마을교육공동체

울산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에 대한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것은 노옥희 교육감이 당선된 2018년 하반기부터이다. 당시 궁근정초등학교가 폐교되고 2년 동안 위탁 운영되던 다담은 갤러리의 계약이 종료되는 시기이기도 했고, 상북중학교 문제가 수면으로 떠오른 시기이기도 했다. 당시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는 '사립으로 운영되는' 상북중에 가면 아이를 망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돌 정도로 부정적 시선이 팽배했다. 급기야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초등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지역을 떠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주민들과 마을교육활동가들은 상북중학교의 공립화 전환을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거점센터 구성원들

울산교육청에 여러 번 요청했다. 그 결과 이듬해인 2019년, 상북중학교의 공립화 전환이 결정되었다.

이를 계기로 "농촌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람들이 떠나는 것이 아니다", "교육환경이 좋아지면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생겨날지도 모른다"는 주민들의 희망에 찬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기 시작하였다. 특히 상북면은 소호리에 '소호산촌유학센터'가 있을 정도로, 교육을 위한 귀촌 가구와 마을교육활동가의 활동이 활발한 곳이었다. 그런 반면 교육환경은 아름다운 자연환경 외에 교육시설이 전무할 정도로 매우 열악했다.

"아이들 교육을 위한 지원이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이뤄져야 하는데 상북면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저희끼리 '상북면에는 유해환경조차 없는 곳'이라고 말했겠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정말 심심한 곳이 바로 우리 마을이었죠. 아이들을 위한 문화적 공간, 그리고 저희 주민들과 마을교육활동가들을 위해서는 함께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거점공간이 꼭 필요했습니다."(김미진, 울산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 운영실장)

상북면 주민들과 마을교육활동가들이 '교육'으로 마을을 살리고, 이를 위한 거점공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와 '다담은 갤러리' 관련 논의가 맞물렸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마을교육활동가와 주민들의 마을교육공동체 공간에 대한 요청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 조성 계획이 수립되었다. "교육청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 마을교육활동가들과 주민들이 교육청에 먼저 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를 만들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교육청은 그런 주민들의





요청에 화답을 하게 된 거죠. 거점센터는 공간 설계부터 운영에 대한 모든 것을 지역 주민들과 교육청이 함께 논의하며 만든 곳입니다.”(노옥희 교육감)

2018년 10월 울산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 구축을 위한 TF팀이 만들어지며 논의가 본격화됐다. 일반적으로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면, 교육청 주도의 전문가 그룹으로 TF팀이 꾸려지게 마련인데, 거점센터 구축을 위한 TF팀만큼은 달랐다. 15명으로 구성된 TF팀에는 교육청 담당자 1명과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 각각 2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주민과 마을교육활동가, 문화예술인, 교수 등이 참여했다. 김용진 울산광역시 교육청 교육혁신과 마을교육공동체 팀장은 “거점센터는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교육청은 마을의 교육력을 살리는데 최대한 지원하여 마을과 학교를 이어줄 수 있도록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더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거점센터 TF팀은 마을교육공동체 시설의 구체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창원의 행복마을학교, 제천의 간디학교, 서울의 하자센터, 의정부의 몽실학교 등 선진 사례를 견학하고 광주광역시의 삶디자인센터, 충북의 진로교육원 등의 경험을 벤치마킹하는 등 1년 여 동안 거점센터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19년 12월에는 ‘울산광역시 마을교육공동체 및 서로나눔교육지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 3월에는 마을교육활동가를 교육청의 임기제 직원으로 채용하며 거점센터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4월에는 개관준비추진단을 별도로 구

성하였고, 센터 내의 각종 공간에 대한 명칭과 세세한 공간 구성에 대한 아이디어와 개관식 및 프로그램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했다. 또, 지역주민과 마을교육활동가를 대상으로 거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마을교사 선발도 결정했다. 아쉽게도 코로나19로 거점센터 개관식은 진행되지 못했지만, 2020년 10월부터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며 조금씩 활동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 폐교에서 마을의 품으로 돌아온 “우리 모두의 학교”

공간 조성의 리모델링 방향은 공근정초등학교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들과 동문들을 위해 외관은 최대한 보존하되, 실내의 공간에 대해서는 마을교육공동체 및 학생 체험 활동의 특성을 최대한 수용하게 하는 것이었다. 중앙현관 쪽 1~2층과 좌우측 벽면을 제거해 개방감을 살렸으며, 모든 놀이터교실 마다 복도 쪽 벽면을 제거한 후 통유리창으로 교체했다. 또한 각 놀이터교실의 성격에 맞는 주제별 색으로 벽면을 채웠으며, 좌우 및 중앙현관 지붕에는 ‘가자산’, ‘고현산’처럼 지역적 특색을 담은 명칭과 조형물을 설치했다.



교문과 건물 앞에는 공간의 특성을 담은 입간판과 사인물을 설치해 누구나 편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거점센터는 크게 1층 커뮤니티홀을 중심으로 오른쪽은 ‘달빛 고현산관’, 왼쪽은 ‘별빛가자산관’으로 나뉜다. 달빛 고현산관 1층에는 거점센터의 중심인 커뮤니티홀이 있다. 이곳은 거점센터를 찾는 사람들을 가장 먼저 반기는 일종의 ‘사랑방’이다. 기존 교실의 복도벽 뿐만 아니라 운동장쪽 벽까지 트여 있어 모임이나 공부 외에도 미니공연이나 시낭송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커뮤니티홀 옆의 공유오피스에는 마을공유서재와 공유카페도 함께 운영 중이다. 마을공유서재에는 마을주민뿐만 아니라 울산시민들이 소중히 여기는 책들이 센터를 방문하는 모든 이들과 공유하기 위해 비치되어 있으며, 100인의 책꽃이를 목표로 서가를 채워나가고 있다. 센터를 방문하는 이들의 후원금으로 무인카페로 운영되는 공유카페에서는 주민들이 마을 바리스타 자치운영단을 구성해 커피 재료와 장비 등을 관리하고 있다. 마을 바리스타 교육을 통해 바리스타 양성도 하고 있다. 그 외에 이장단 회의, 마을동아리 활동의 중심이자 마을자치활동의 거점이 되는 마을자치실이 있다.

달빛 고현산관 2층은 마을의 청소년과 어른들을 위한 공간이다. 청소년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그들만의 아지트인 청소년 자유놀이터와 자치활동을 위한 청소년 자치실이 있다. 소리놀이터는 1층의 밴드놀이터와 함께 풍물, 기타, 타악, 마을합창, 마을밴드 등 주민들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다.

커뮤니티홀의 왼쪽에 있는 별빛 가자산관은 학생들과 주민들의 체험교육을 위한 놀이터교실 위주로 공간을 구성했다. 1층에서는 목공 수업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여기서 주민들이 만든 목공 가구를 중 일부를 거점센터 내에서 사용하고 있다. 흙놀이터와 요리조리놀이터도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공간이다. 요리조리놀이터의 경우 요리와 제과제빵을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평일에는 울산지역 학교의 학생들이 와서 체험을 하고 간다. 물론 마을잔치가 있을 때는 마을을 위한 공유부엌으로 변신하기도 한다. 별빛 가자산관 2층에는 손놀이터, 그림놀이터, 몸놀이터가 있다. 손놀이터의 경우, 손바느질과 재봉틀, 뜨개질을 배우는 것은 물론 재활용을 위해 자신들이 쓰지 않는 물건을 가지고 오는 등 기후위기 시대의 삶의 기술도 함께 배우는 공간이다. 그 외에도 운동장에는 큰나무교실과 숲놀이터, 모험놀이터가 있으며, 뒷마당에는 아무튼놀이터와 생태교실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교육 활동이 가능하다.

“교육청 시설이라고 하면 학생이나 선생님들을 위한 학습공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겐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그런데 거점센터는 주민들이 공간기획 단계부터 함께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마을교사가 되어 마을주민을 비롯한 울산시민과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고 배우면서, ‘우리 공간’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이선영 마을교사)

### 주민의 자발적 운영 참여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

울산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는 교육청 소유로 교육청 직영으로 운영된다. 대외업무는 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팀이 중심이 되어 지원하되, 거점센터 내의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관리 등 실질적인 운영 관련은 임기제 직원(마을교육활동가 출신 주민)인 운영실장 중심으로 파견교사인 교육팀장, 행정주무관이 함께 맡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주민, 교사, 마을교



사, 청소년, 지자체, 교육청으로 구성된 ‘마을교육자치협력단’이 함께 하는 ‘2차원 시스템’이 특징이다. 마을교육자치협력단에는 청소년자치팀도 함께하여, 지역의 청소년들이 거점센터 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게 통로를 만들었다. 거점센터에서는 다양한 지역공동체 프로그램과 마을동아리 활동, 지역 내 학교와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역공동체 프로그램으로는 첫째 ‘마을시민배움터-배움의 숲’이라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있다.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요리, 제과, 도예, 목공, 요가, 그림, 텃

## Interview

“마을교육공동체는 교육을 통해 마을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노옥희 교육감



울산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 운영을 위해 교육청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요?  
교육청에서는 거점센터 구축부터 운영까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100% 교육청 자체 예산입니다. 거점센터의 마을교사와 함께하는 지역 내 학교연계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경우, 학생들의

이동에 따른 차량비용과 준비물, 마을교사 수당은 물론 센터 프로그램도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울주군과 정책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서로 나누고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마을’을 주제로 교육청의 마을교육공동체 사업과 울주군의 마을공동체 사업의 연계 및 활성화를 통해 마을교육 거버넌스도 구축했습니다. 앞으로 울주군과 함께 관내 폐교를 활용한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타 지역에서 울산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와 같은 생활SOC 시설을 만들 때 중요하게 생각할 점은 무엇인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핵심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간이 있고, 예산이 있어도 그걸 하나로 엮어낼 사람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입해 공간을 만드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곳에 거점센터가 가능했던 것도 상북면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마을교육활동가 네트워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마을의 역량을 파악하고, 역할을 해 낼 수 있는 사람을 찾아 그분들과 함께 사업을 진행할 때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댄스, 밴드교실 등 다양한 수업이 열린다. 둘째 주민들이 직접 기획·참여·실행하는 시민협력 프로젝트가 있다. 허가구 새활용 프로젝트, 센터가구 만들기, 마을텃밭정원 프로젝트, 놀이터 만들기, 오두막짓기 프로젝트 등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기획자가 되어 참여할 수 있다. 마을살이 학교도 운영 중이다. 지역의 어르신들이 된장, 김치 담그기, 빗자루 만들기 등을 직접 가르친다. 할매·할배 강사와 주민이 함께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에게는 자부심을, 주민에게는 유용한 생활정보를 제공하여 상호 만족도가 높다. 마지막으로 거점센터의 핵심 프로그램이라 할 ‘누구나 땡땡교실’이 있다. 누구나 땡땡교실은 주민들의 재능기부로 진행되는데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교사가 되어 직접 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어른과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싶어요.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잠재된 재능을 깨우고 스스로 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김미진 운영실장)

이외에도 ‘마을동아리’에서는 거점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되 한 가지 이상 마을을 위한 기여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 교육청과 지자체, 주민이 함께 채워가는 진행형 공간

지역 내 학교들과 연계하는 활동도 다양하게 진행한다. 공립형 대안학교인 ‘고운중학교’의 교육과정을 지원하기도 하고, 인근 상북중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도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울산지역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중등 창의체험 프로그램’에는 연간 15,000여 명의 학생들이 마을교사들과 함께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반응이 좋



1층 커뮤니티홀 옆에는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유 오피스와 마을서재, 공유카페가 운영되고 있다.

다. 특히 반딧불이 유충을 직접 관찰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생태교실과 농사교실, 적정기술교실처럼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거점센터가 추구하는 교육적 지향점이 잘 드러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울산의 학생들에게 거점센터는 ‘가고 싶은’, ‘재미있는’, ‘해보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땡땡마을”로 유명하다.

“저희 프로그램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지역의 마을 교육활동가를 임기제 직원으로 채용하고, 마을교육자치 협력단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니즈를 신속하게 반영하는 것은 물론 ‘누구나 땡땡교실’처럼 주민들이 직접 자신들이 배우고 싶은 교육을 만들어가며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있어 가능했습니다.”(김용진, 교육혁신과 마을교육공동체 팀장)

거점센터 내 19명의 마을교사 중 9명은 지역의 청년들이다. 거점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정주하고 싶다는 욕구를 가질 수 있게 하여 농촌지역의 청년 인구 감소를 예방하게 하는 긍정적 시그널로 작동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울산마을교육공동체가 지역주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아 울주군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21년 4월

27일 울산광역시 교육청과 울주군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관-학(혁신교육지구 사업) 협업을 통한 마을살리기, 마을과 학교의 공존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울주군에서는 10월부터 거점센터에 기간제 인력을 파견하여 시설 관리 및 마을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 함께 협력하고 있다.

“비록 출발은 함께 하지 못했지만, 지자체와 함께 마을과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교육청과 울주군이 체결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업무협약이 더욱 소중한 이유이기도 합니다.(최지영, 마을교육공동체팀 주무관)

마을이 살아야 학교가 살고, 마을교육공동체가 활성화되어야 아이들이 마을에서 더 행복하고 즐거운 배움을 이어갈 수 있다. 거점센터를 통해 주민들 스스로 배우고 가르치며 함께 성장하고, 세대간 교류를 하는 울산마을교육공동체 거점센터. 이제 상북면을 넘어 울산광역시 5개 구·군의 마을교육을 되살리는 거점센터로서 그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 CASE 3

## 푸른마을공동체센터

주민참여와 적극 행정으로  
공동체 활성화와 사회적경제를 모두 잡다!

## Specification

- 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67번길 29
- 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대지 1,159㎡, 연면적 2,163.9㎡)
- 사업기간 | 2017.8.~2018.8.(2018.12.26. 개관)
- 총사업비 | 54억 7,000만원(국비 27억 3,500만원\*, 시비 13억 6,750만원, 구비 13억 6,750만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선도사업
- 운영비 | 약 4억 9,900만원(구비)
- 시설소유 | 광주광역시 동구
- 운영주체 |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
- 연락처 | 062-608-8977



키워드

지속가능디자인네트워크,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지역활동가 네트워크 단체

70여 개



각 동별 마을사랑채 건립계획

13개



주민체감형 프로그램

11건



광주광역시 동구는 과거 고급 주택가와 관사, 대사관 등이 있던 원도심이었으나 도시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활력을 잃은 지 오래됐다. 그러던 지난 2015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건립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다시 동구로 옮겨졌다. 청년과 문화예술인들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마침 동구는 2014년부터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선도사업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어 충장동, 동명동, 산수1동, 지산1동을 중심으로 '푸른공동체와 함께하는 문화도심 재생'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동명동의 폐선 기차길을 공원화하는 푸른길 조성사업과 카페거리, 원도심 활력프로젝트, Cook 폴리 등 유관 재생사업들도 더해지면서 동구는 이제 광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오고 싶은 핫플레이스로 자리잡았다. 이런 동구의 극적인 변화 뒤에는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주민들과 활동가, 그리고 행정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특히 2018년 12월 동명동에 개관한 '푸른마을공동체센터'는 2014년부터 시작된 동구 원도심 재활성화의 거점공간이자 커뮤니티 네트워크의 중심이었다.

##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간 구성,

## 유아부터 어른까지 함께 누리는 공동체공간

산뜻한 흰색 외벽의 푸른마을공동체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다. 1층에는 장난감 도서관, 어린이 실내놀이터 그리고 지역 마을협동조합이 임대하여 운영하는 카페가 있다. 2층에는 회의실, 무한상상실, 공유부엌, 커뮤니티공간이 있으며 3층에는 다목적실과 물품공유센터 그리고 광주 동구의 참여형 도시재생 생태계 조성 및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실이 있다. 그리고 녹색의 주민힐링공간인 옥상가든이 최근 들어 오픈했다. 이곳의 층별 구성에서 특이한 부분은 무엇보다 1층의 장난감 도서관과 어린이 실내놀이터다. 7세 이하 자녀를 둔 동구 주민이나 동구 소재 직장인은 회원으로 가입하면 월 2회 이내 회당 2점의 장난감을 이곳 장난감 도서관에서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총 487품목 717점의 다양한 장난감이 있어 아이를 둔 주민들의 호응이 높다. 또 1시간 기준 1인당 1,000원만 내면 이용 가능한 어린이 실내놀이터도 이용자들이 많다.



이러한 공간 구성에 대해 도시재생지원센터 정의춘 센터장은 “1층에 어린이 실내놀이터와 장난감 도서관을 둔 것은 재개발로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어오면서, 영유아를 둔 젊은 부부가 많아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푸른마을공동체센터는 지역 주민과 마을을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기에, 가능한 한 많은 주민들이 편하게 공동체센터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지요”라고 설명한다.

실제 센터 이용자 설문조사를 보면 1층 장난감 도서관과 어린이 실내놀이터에 대한 만족도는 2년 연속 9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휴관일이 많아졌고 입장인원 제한이 생겼지만, 여전히 자녀가 있는 동구의 주민들에게 인기가 많은 공간이다.

2층과 3층은 마을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공유부엌에서는 김장 담그기 행사나 반찬 만들기, 체험 교실 등을 진행하며, 커뮤니티공간과 다목적실의 경우 마을 단위의 큰 행사나 세미나, 발표회,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2층의 무한상상실에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드론 날리기, 체험교실, 클레이를 이용한 오감만족 생태교실, 어린이 인문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데 이는 한국과학창의재단과의 협업사업으로 가능하다고 한다.

## 다양한 지역 활동가 네트워크로 주민참여의 물꼬를 트다

이러한 푸른마을공동체센터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것일까. 그 배경을 이해하려면, 2014~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건립되면서 예술인, 문화기획자들이 모이게 되었고, 특히 구도심



## Interview

“마을사랑채를 통해 주민이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게 됩니다”

이원근 도시재생과장

푸른마을공동체센터의 사례는 마을사랑채  
사업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요?

마을사랑채는 각 마을의 소통 공간입니다. 그런 점에서 푸른마을공동체센터는 마을사랑채의 훌륭한 롤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을사랑채의 필수 공간인 공유부엌이나 다목적공간을

대부분 푸른마을공동체센터를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또한 푸른마을공동체센터를 통해 발굴된 마을활동가들이 다시 각 마을로 돌아가 활동하는 순환구조가 만들어진 것도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주민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마을사랑채와 같은 사업을  
진행할 때 행정은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행정에서 정책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공지하면 효과가 적습니다. 그래서 마을사랑채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의 개입은 최소화 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는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각 동에서 쓰지 않거나 방치되어 있는 건물이나 유휴공간을 발굴해 지역의 특징에 맞는 마을사랑채 공간을 만들어 주되, 운영은 주민 스스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마을사랑채운영협의체를 만들어 '사랑채 토론한마당'을 통해 마을사랑채 운영 방향과 마을의 개선점에 대해 논의하고 함께 해결하고 있습니다.

특유의 분위기가 남아 있는 동명동에 젊은이들의 관심이 쏠렸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지역에서 문화활동을 떠나가기 시작했고 행정 역시 이를 주목했다.

양진철 문화관광과 문화기반조성계장은 “주민들의 자생적 공동체 활동에 문화기획자들이 함께하면서 내용이 훨씬 풍부해졌습니다. 단순히 주민간 교류 수준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를 위한 의미 있는 활동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됐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시작한 거죠”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마을의 가치를 발굴하기 위한 ‘청소년 인문학 강좌’는 물론 주민 네트워크를 촉진하는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 등을 열었다. 특히 주민들 간 네트워크를 촉진하기 위

한 프로그램을 썼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내 이웃이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시죠?’이다.

당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활동했던 천혜원 문화관광과 주무관은 3세대 커뮤니티 디자이너 아마자키료의 ‘1인 3인 방법론’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한 사람이 참여하면, 다음 모임에 세 사람을 데리고 오게 하여 참여를 넓히는 방식이다. 그렇게 네트워크를 넓혀 나가면서, 나중에는 40명 넘는 사람들이 함께 할 정도로 관심이 높아졌다. 또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들을 중심으로 동그라인, 업사이클링, 67퍼니마켓, 트렁크 추진위, 생생골목 프로젝트, 매력적인 동박거리 연구회, 동알이(동구를 알리는 청소년 활동 동아리), 7979친구친구 등 소모임과 ‘지속가능 디자인 네트워크’란 이름의 네트워크도 만들어졌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직접 지역의 활동가들을 발굴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지역에서 일할 활동가를 찾아내고 관계를 확장할 수 있었어요. 또한 개별로 활동하던 이들도 서로가 마을에 대해 갖고 있는 문제의식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면서 새로운 연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양진철 문화관광과 문화기반조성계장)

총 6회 진행된 ‘내 이웃이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시죠?’ 프로그램을 통해 연결된 문화기획자와 지역활동가, 주민들은 이후 지역의 자원을 순환하는 ‘Resilience(회복력)’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2014년 이들의 주도로 시작된 자원순환 축제 트렁크 톨 페스티벌은 지금도 매년 이어지고 있으며 그 외에 트렁크쏘마 유랑마켓(2015, 10회차), 트렁크 팜 바이놀장(2016, 총 8회), <잉여의 쓰임>(2015년~, 총 3회)과 같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주민과 만났다. 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의 적극적인 활동 지원과 촉진을 통해 이들은 ‘트렁크 톨 페스티벌’ 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트렁크’라는 브



1층 카페는 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의 사랑방이다.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었던  
지속가능 디자인 네트워크.(왼쪽부터) 송혜경 지역활동가,  
정의춘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천혜원 문화관광과 주무관,  
이원근 도시재생과장.

랜드도 만들었으며 지역 속에서 자생을 도모하며 활동을 전개했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운영을 돕는  
통합지원센터로 기능

이렇게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문화활동 속에 공동체가 성숙하면서 커뮤니티 공간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2016년 1월, 공간 운영을 위한 첫 자문회의가 열렸다. 시설 건립 추진을 위한 주민 네트워크에는 ‘푸른길 마을공동체’란 이름이 붙었다. 지역활동가 네트워크 회의에 이어 같은 해 8월부터 10월까지 두 달 동안은 해당 공간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하느냐를 논의하는 TF분과 회의가 네 차례 열렸다. 시설 건립 관련 주민설명회를 성공리에 마친 후 설계 용역이 완료되었다. 주민 공청회를 열어 건축 설계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리하여 푸른마을공동체센터는 2018년 12월 26일 개관할 수 있었다.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진 공동체공간이지만, 푸른마을공동체센터의 운영주체는 도시재생지원센터다. 도시



재생지원센터는 푸른마을공동체센터가 있는 동명동뿐만 아니라 광주시 동구 전체 지역의 지속적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활성화, 사회적경제를 위한 지원사업을 펼치는 종합지원센터이다. 보통은 지역의 단체들에게 공동체공간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이곳의 방식에 궁금증이 들 만하다.

협동조합 산수다락의 대표이자 지역활동가인 송혜경 씨도 그같은 의문을 품었던 주민 중 한 명이라고 했다. 그는 “처음에는 왜 다른 곳들처럼 지역에서 활동하는 협동조합이나 활동가들에게 푸른마을공동체센터를 위탁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직접 운영했기 때문에 지금의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라는 영역을 모두 연결하는 종합지원센터 역할이 가능했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밝힌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그리고 사회적경제 같은 가치를 잃지 않고 통합지원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기에 주민과 활동가들이 자연스럽게 센터를 중심으로 모이게 되었고, 서로 다른 니즈를 균형 있게 수용하며 발전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생태계 구축에 특히 집중했다. 주민체감형 참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분야별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한 것이다. 도시재생 아카데미(3회), 사회적경제 창업 사관학교(2회), 마을배움학교(5회),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1회) 등 총 11회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지역활동가들의 성장과 전문성을 높이는 핵심 사업이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정의춘 센터장은 “지난 3년간 센터에서 ‘사람을 키우는 것’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전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성장한 활동가, 주민들이 도시재생,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복지) 코디, 퍼실리테이터 등 다양한 마을자치활동의 활동가, 매개자, 촉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통합적 플랫폼으로 기능하면서 주민자치를 정착하고 마을공동체의 일상화를 이루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해요”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센터 프로그램을 수료한 도시재생 및 지역 활동가들은 100명에 육박하며 그중 20명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이들은 ‘동네방넛’이라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다시 동 단위

마을로 돌아가 각 마을의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자신들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 공동체 공간이 마을을 살리는 사회적경제로 확장되다

푸른마을공동체센터에서 시작된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의 흐름은 이제 동명동을 넘어 동구 13개 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푸른마을공동체센터 사례에 힘을 받은 동구청에서는 2022년까지 13개 동에 ‘마을사랑채’를 만들 계획이다. 각 마을마다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활동의 거점공간이 되고 마중물 역할을 할 공동체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재 마을사랑채는 13개 동 중 6개 동에 설치 완료됐으며, 앞으로 나머지 7개 동에도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마을사랑채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으로, 마을활동가와 복지전문가, 공동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운영협의체’에서 운영한다. 각 마을은 운영협의체를 중심으로 마을의 의제를 발굴하고, 다양한 모임과 축제, 교육 등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 특히



영유아 맞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2층 무한상상실.



어린이 실내놀이터 입구.



어린이 실내놀이터는 주민 만족도가 2년 연속 9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 푸른마을공동체센터에서 시작된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의 흐름은 동구 13개동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마을사랑채에서 활동하는 마을활동 전문가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지역활동가들이 사무국장 또는 코디로 참여해 마을자치 생태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마을사랑채 사업을 맡고 있는 이원근 도시재생과장은 “마을사랑채는 100%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곳으로, 행정은 정말 최소한의 개입만 하고 있습니다”라며 앞으로 마을사랑채를 중심으로 주민들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행정이 미처 돌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까지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공동체공간을 통해 주민들이 모이고 참여와 자치의 흐름이 강화되면서 마을을 살려내는 사회적경제 흐름도 강화되고

있다. 마을과 주민자치가 연결된 사회적경제조직이 만들어져 자산2동, 지원1동, 자산1동 등에서 활동중인 것. 자산2동의 ‘다복마을협동조합’과 지원1동의 ‘무등에너지협동조합’이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다복마을협동조합은 지역의 인물·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탐방코스를 개발해 운영하고 있으며, 무등에너지협동조합은 에너지 카페와 체험관을 운영하는 에너지전환마을이다.

푸른마을공동체센터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공동체 활동을 펴온 주민들과 이들의 네트워크 힘을 믿고 지원하며 꾸준히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도시재생 생태계를 구축한 도시재생지원센터. 묵묵히 뒤에서 이를 뒷받침한 동구청의 멋진 삼박자가 없었더라면 제 역할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센터 초기에 사람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지금은 지역활동가의 전문성을 어떻게 성장시킬까가 고민입니다. 주민자치회, 마을협동조합 등에서 주민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고 상호 연계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거점공간인 이곳에서 해야 할 일 아닐까요?”라는 정의춘 센터장의 말은 주민의 자발성과 자치의 힘이 이곳 푸른마을공동체센터를 넘어 동구 전체로 확산될 것이라는 든든한 믿음을 준다.



## CASE 4

## 국공립 연천어린이집

운영자, 행정, 설계자의 세심한 실행력이 돋보인다

## Specification

- 위치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현가리 57-1 현가근린공원 내
- 규모 | 지상 1층(대지 11,450㎡, 연면적 597.977㎡)
- 사업기간 | 2016~2019.8
- 총사업비 | 23억 7,800만원(국비 2억 5,600만원\*, 도비 1억 2,8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5억, 군비 14억 9,400만원)  
\* 2017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 운영비 | 9억 7,100만원
- 시설소유 | 연천군
- 운영주체 | 연천어린이집
- 연락처 | 031-834-0131



키워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자·이용자 중심 설계, 적극행정



설계 실무회의

15<sup>회</sup>

예산증액

5억 2백만원 → 24억 5백만원(약 19억 300만원 증액)



공기연장

8개월 → 1년 1개월



(왼쪽부터) 방효숙 전 보육아동팀장, 공민하 주무관, 박장숙 원장, 이상경 주무관, 김태영 건축가, 이혜경 보육아동팀장.



플레이홀에서 맘껏 노는 아이들

수레울아트홀이 있는 경기도 연천군 현가리. 이곳에는 주민들이 즐겨 찾는 현가근린공원이 있다. 이 공원의 북동쪽 모서리에 있는 단층 회색 건물이 국공립 연천어린이집이다. 연천군은 지난 2018년 연천어린이집의 신축 사업을 진행했다. 국토부의 '신진 건축사 공모 지원사업'을 통해 설계된 연천어린이집은 공공건축물로서 어린이집의 기준을 한 단계 올렸다는 평가를 받았고, 2019년 한국건축문화대상 신진건축사 부문 대상, 2019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뿐만 아니라 비교적 외진 곳임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이용자 조사 92% 이상의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다. 77명 정원에 77명 원아가 대기 중일 만큼 학부모의 평가가 높은 데다가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의 만족도도 높다. 이러한 성과는 보육환경 개선을 끈질기게 요구한 운영주체(어린이집), 운영주체의 의견을 성실하게 듣고 설계에 반영한 건축사,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짠 행정에 이르기까지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한마음이 되었던 협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 침수 피해 어린이집이 직접 나서

## 신축 필요성을 제기하다

원래 군청 근처 주택가에 있었던 연천어린이집. 1996년 첫 침수 피해를 제대로 복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1999년 2차 침수가 발생하자 건물 내외부로 지속적 누수와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어린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습기와 곰팡이도 문제였다. 박장숙 원장은 군청을 찾아가 여러 번 어린이집의 문제를 호소했다.

“10년 동안 공무원들이 오실 때면 바닥 장판을 들춰 보여드

렸어요. 이대로 두면 안 된다고, 어린이집 이전을 계속 호소했는데 해결이 되지 않아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다 2016년에 보육아동팀장을 만나 설명을 드렸더니 ‘안 지으면 안 되겠는데요’라고 단박에 말씀해주셨어요.”(박장숙 원장)

누수 피해가 있었지만 지어진 지 17년밖에 되지 않은 상태여서 신축 이전이 타당한가라는 의문을 피할 수 없었다. 방효숙 전 보육아동팀장은 해당 어린이집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고,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신축 근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2017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신청, 대상자로 선정되어 2017년 6월 국고보조금 예산(2억 5,600만원)을 확보했다.

“국고보조금 예산이 나오면 도나 군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그렇지만 어린이집 신축 작업은 국비의 몇 배나 되는 돈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연천군의회에 나가 사업을 브리핑하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한 의원님이 아이들을 위한 건데 투자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공감해주시면서 분위기가 만들어졌죠.”(방효숙 전 보육아동팀장)

행정과 의회의 공감 속에서 방효숙 전 팀장은 부지 선정, 어린이집 건립 주요 방향 등을 놓고 박장숙 원장과 초기부터 많은 대화를 나눴다. 어린이집은 운영주체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지 선정에도 박장숙 원장의 제안에 열린 태도를 취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외부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온 박장숙 원장의 눈에 뵈는 곳이 이 현가근린공원이었다. 공원부지였기에 행정상 중층적인 협력체계가 필요했지만 부서 간 협조로 현가근린공원 내에 어린이집을 짓기로 최종 결정이 났다.



## 신진건축사 설계공모 등

### 행정이 어린이집 신축을 위해 적극 나서다

연천어린이집은 2017년 국토부의 ‘신진건축사 설계공모지원’으로 지어졌다. 여기에는 좋은 공공건축물을 지어 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의 기준을 높이겠다는 담당 공무원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

“한번 지으면 수십 년을 가잖아요. 그래서 디자인에서나 기능에서나 좋은 건축물을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연천군은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먼 지역이라 우수한 건축사들이 참여하기 어려울 거 같았죠. 그래서 ‘신진건축사 설계공모지원사업’을 활용했습니다.”(방효숙 전 보육아동팀장)

신진건축사 설계공모지원은 공모 공고일 현재 만 45세 이하의 건축사들로 공모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이하 AURI)이 함께 설계공모 전반을 대행했다.(참고로 해당사업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운영주체의 의지와 적극적 행정으로 좋은 시설의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모델을 만들다



창을 오픈하면 마당과 연결되는 플레이홀.

이러한 국책연구기관의 공모 대행을 통해 설계공모의 신뢰도와 공정성 확보는 물론 대외 홍보 및 설계자 선정까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다. 특히 AURI는 심사위원 구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자 및 어린이집 설계 경험자를 중심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공모를 내기 전에 심사위원과 발주처(연천군), 운영자(어린이집)를 한자리에 모이게 했다. AURI의 임유경 박사는 “심사위원들이 연천어린이집의 건축 여건과 시설 특성을 잘 이해하고 심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연천군 담당자와 운영자(어린이집 원장)가 포함된 사전회의를 열었습니다. 또 이분들이 심사위원회에도 참석하여 심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질문에 답변할 수 있게 했습니다”라고 진행 과정을 설명했다. 이런 사전 과정을 통해 참여 주체 모두가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그 결과 7월 설계공모 관련 현장설명회에는 64개의 업체가, 그리고 최종 작품제출에는 24개 업체가 참여했다. 작은 도시의 어린이집 설계공모로는 이례적으로 많은 관심이 모인 것이다. 그리고 스튜디오 메조(김태영 대표)와 메조 파트너스의 응모작이 당선되었다. “초등학생 아이를 둔 엄마로서 어린이집 건립은 꼭 해보고 싶은 프로젝트였다”는 김태영 대표는 “그전까지 연천군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이 사업이 일반적인 조달청 공고로 나왔더라면 기회를 놓쳤을 거예요”라며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설계공모에서 핵심은 어린이집을 공원 내에 짓되 특정 위치를 정하지 않은 것이었다. 공원으로서는 기능을 유지하면서 어린이집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부지를 정하는 것이 중요 과제였다. 스튜디오 메조는 현재의 위치에 어린이집을 놓아 동측 도로로부터 차량 접근로를 최단거리로 하고, 공원 바닥포장, 수목이식, 시설물 변경을 최소화하는 안을 제시

했다. 또한 어린이집 외부 공간과 공원과의 시선을 고려하여 그 경계부에 우드루버를 설치했다. 아이들이 공원 밖을 보는 근거리 시선은 열어놓고 외부인이 어린이집을 바라보는 원거리 시선은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의도였다.

2017년 가을부터 설계안을 두고 15차례의 설계 실무회의가 진행되었고, 실무회의에도 운영주체가 참여하여 보육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그 결과 설계안보다 보육실을 더 넓혔고, 화장실 개수도 늘렸다.

“용변이 아직 완벽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으니까 보육실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거리에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 영아 화장실에는 샤워 수전, 기저귀 거치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도 주셨어요. 원장님과 또 보육교사님들과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었기에 나중에 변경하려면 번거로운 사안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어요.”(김태영 대표)

##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지어진

### 자연을 맘껏 누릴 수 있는 어린이집

이곳에 들어서면 통유리 창이 개방감이 느껴진다. 특히 아이의 눈높이를 고려한 세심한 설계로 실내에 있는 아이들도 창문을 통해 언제든지 하늘을 볼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남측에는 고층 창을 통해 풍부한 자연채광을 유입하고, 높이차를



창을 통해 언제나 밖의 자연과 교감할 수 있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춘 곳에 창문을 낸 보육실.

## Interview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이 중요합니다”  
임유경 건축공간연구원 박사

연천어린이집은 지방에서 진행된 작은 규모의 설계공모임에도 참여도가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사위원의 구성으로 예측되는 공정성, 설계공모 운영의 투명성 등이 설계공모 참여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어린이집 전문가로 인정받은 이들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게 참여도가 높았던 1차 요인이었고, 또 국책연구기관인 건축공간연구원(AURI)이 설계공모를 대행했기에 투명한 절차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포켓가든

갓는 창을 두어 쾌적한 자연환경도 신경 썼다. 옥외공간(플레이그라운드)을 중정처럼 가운데 두고 복도처럼 난 플레이홀(실내놀이터) 옆으로 보육실을 놓았다. 그래서 아이들의 시선이 자연스레 옥외공간으로 모이도록 했다. 놀이기구 외에 미니 풀장과 모래밭이 있어 맘껏 놀이체험이 가능한 공간이다. 이곳은 특히 영아실과 유아실로 가는 각각의 복도(플레이홀)가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 넓고 중간중간 장난감들이 있다. 일종의 실내놀이터인 셈인데, 신체활동이 필수인 아이들이 비나 눈, 황사 등에 개의치 않고 실내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배려했다.

“아이들이 플레이홀에서 막 뛰어다녀요. 처음엔 다칠까봐 걱정했는데, 크게 다치는 애들도 없고 몸을 막 움직일 수 있으니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또 창문을 통해서 자연을 느끼죠. 잠자리가 날아간다고 신기해하고, 눈이 오는 날이면 애들이 하늘을 쳐다봐요. 정말 좋은 공간이에요. 이런 만족감이 있어서 조금 공간이 적고 보육교사들의 휴게실이 따로 없는 작은 불편점은 괜찮습니다.”(박장숙 원장)

**운영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행정의 유연성과 건축사의 적극성이 어려움을 해결하다**

연면적 600㎡를 넘을 경우 소방방법으로 인허가가 복잡해지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연천어린이집은 면적은 더 넓히는 대신 공간 이용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지어졌다. 폴딩도어를 설치하여 두 개의 보육실과 플레이홀까지 연결하여 공간을 넓혀 쓸 수 있게 했고, 그렇게 하여 연례행사들도 충분히 치를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여러 요인이 겹쳐 공사비 증가와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해졌다. 초기에 미처 생각지 못했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을 위한 작업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장애인 아동의 통로 및 출입구 폭, 장애인 화장실이 작업 내용에 추가되었고 어린이 활동공간 인증 기준 강화에 따라 재료비도 상승했다. 그 결과 약 12억원을 예상했던 사업비는 22억 7,000만원으로 늘어났고 담당 공무원들은 2018년 2월 두 차례의 계약변경을 진행하여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가 짓는 건물의 경우 설계안대로 온전히 지어지는 경우가 드물지만 연천군은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승인했다.

“막판에 생각지 못한 어린이집 차량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린이집 차량은 비 안 맞는 곳에 주차가 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붕 하나만 얹으면 되겠지 했는데 건축 면적이 안 나오니 해결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을 찾아갔는데 건축과장님이 가설 건축물로 신고하고 정기적으로 신고하자는 의견을 내주셨어요. 그걸 누가 신고해야 하는가가 고민이었는데, 그것도 담당 주무관이 선뜻 나서주셨어요.”(김태영 대표)

어린이집이 건립되던 중에 시설공사팀으로 발령 난 감독공



유리문을 통해 옥외공간을 볼 수 있다.

무원인 이상경 주무관이 이를 해결했다. 그는 인테리어 가구 등 마무리 비용이 1억원 더 필요하다는 요청에 추가예산도 받아주었다. 이처럼 사업을 시작한 것은 방효숙 전 팀장이지만, 연천군청의 보육아동팀 및 시설공사팀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이어달리기’와 같은 협력과 지원을 통해 연천어린이집의 성공적 개관을 도운 셈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보육 인프라는 대도시이든, 중소도시이든, 시골마을이든 꼭 필요한 생활인프라다. 그리고 잘 지어진 보육시설은 젊은 부모세대가 떠나가는 것을 막아주고,



공원부지안장점을 살려 중정처럼 마당을 두어 아이들이 맘껏 옥외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게 했다.

**Interview**

“지역을 위해 모범사례를 만들고 싶었어요”  
방효숙 전 보육아동팀장



**행정과 운영자, 설계까지 3주체의 협업 프로젝트가 잘 풀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왕 지을 거면 기준을 높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30년 이상을 쓸 건물인데 30년도 되기 전에 ‘안 좋네, 불편하네’ 이런 말이 들려오면 안 되잖아요. 연천군은 인구수도

적고 보육인프라는 더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적어도 국공립어린이집이라도 제대로 된 모범사례를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직접 할 순 없거든요. 저는 예산을 만들어 다음 단계를 밟아가는 일을 할 뿐이고, 실제 시설은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선생님이 제일 잘 알고, 실제로 건물을 만드는 건 건축가가 전문이죠. 어린이집의 기준을 높이겠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에 이런 체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유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료 공무원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공무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이 어린이집 원장은 바뀔 텐데, 이 사람 말만 듣고 해도 되나’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떨쳐야만 해결되는 게 있어요. 사실 여러 원장님 이야기를 들어봐도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일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그분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해요. 행정의 입장만을 고집하지 않고, 최대한 이야기를 들어 반영할 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전 보육이라는 게 행복한 사람으로 성장시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어린이집이 그런 제대로 된 어른으로 성장하게 하는 밑바탕이 되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런 공간을 짓는 데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연천어린이집의 사례는 운영자의 열의와 행정의 실행력이 만나 거버넌스를 이룰 때 얼마나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잘 보여준 사례다. 2021년 기준 합계출산율 0.78명.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이 심각한 저출산의 시대, 지역 소도시의 어린이집, 유치원들을 생활SOC로 더욱 주목하고 지원해야 할 이유다.



# 버들마을스토리 공감

지역자원 연계로 지속 가능을 꿈꾸다!

## Specification

- **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2동 136-18, 19
- **규모** | 지상 3층(대지 304㎡, 연면적 317.82㎡)
- **사업 기간** | 2015~2019년(2019.10.15. 개관)
- **총사업비** | 10억 2,300만원(시비, 부지매입비 비포함)\*  
\*서울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 **운영비** | 연간 5,400만원(구로구 시설관리비 지원 연간 600만원 포함)
- **시설 소유** | 서울특별시
- **운영 주체** | 버들마을 주민공동체 운영위원회
- **연락처** | 02-2686-5952



키워드  
**주민공동체운영회, 지역 문화활동의 거점**



건축설계 주민워크숍  
**3회**



바리스타 배출(21.6. 현재)  
**16명**



운영위원회 회원  
**6명 30명**



(왼쪽부터) 장윤승 주거환경관리팀 주무관, 정지선 주거환경관리팀 팀장, 송인태 부회장, 박정아 지역재생활동가, 김순자 부회장, 천지혜 총무.

**구로구 오류동**은 경인선 철도를 경계로 오류1동과 오류2동으로 나뉜다. 오동나무와 버드나무가 많이 나는 곳이어서 오류동이다. 서울과 인천을 오가는 길목에 있는 이 동네는 조선시대 보부상들을 대상으로 형성된 오류골 주막거리가 있는 곳이었고, 1980~90년대에는 구로공단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모여든 노동자들의 주거지대로 활력이 넘치기도 했다. 그러나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대부분의 오래된 동네가 그렇듯 오류동도 낙후되기 시작했다. 지은 지 20년 이상 된 4층 이하의 노후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데다가 좁은 골목, 부족한 주차공간 등 정비되지 않은 환경의 영향으로 새로운 인구 유입은 줄고, 기존 주민들도 하나둘 동네를 떠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014년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증진사업과 2015년 서울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었다. 그렇게 지역에 기반시설이 정비되면서 ‘우리도 해보자’고 뭉치기 시작한 주민들이 공동이용시설 버들마을스토리 공감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공동체를 꿈꾸기 시작하면서 오류2동은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을을 되살려보자’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킨 곳, 바로 ‘버들마을스토리 공감’을 찾았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다

서울시 도시재생 마을활동가로 오류2동에서 활동하는 박정아 씨는 “누구라도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당시 오류2동은 단독주택가로 집이 작고 낡고 주차공간도 충분하지 않았어요”라고 당시를 떠올렸다. 살고 있는 주민들조차 ‘언젠가는 떠날 곳’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동네였던

것이다. 전철 1호선 개봉역, 구일역, 신도림역의 상권이 활성화되고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있었던 반면에 이들이 있는 오류동역 부근은 별다른 개발의 흐름이 보이지 않았고, 주민들의 기대치는 더욱 낮을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다수의 주민이 고령이라 스스로 마을에 변화를 도모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던 차에 2015년 시작된 서울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오류2동 마을에 변화의 동력으로 작동하기 충분했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의 방식이 아니라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새로운 주거형태를 조성하고, 주민들의 정주성을 보장하는 방식의 사업이다.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한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서로 소통하고 참여 협력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들의 참여와 공동체 회복이야말로 이 사업의 성패를 가늠하는 열쇠였다. 오류2동 주민들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기존 직능단체가 아닌 일반 주민들 중 마을공동체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 약 30명이 주민협의체에 참여했다. 이들은 2015년 8월 사업이 시작된 이래 2019년 10월 주민공동이용시설인 버들마을스토리 공감이 개관하기까지 총 3번의 주민설명회와 13차례나 되는 주민워크숍을 진행하며 다른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냈다.

“주민들이 정말 열심히 참여해주셨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구역 지정부터 개선 방향을 확립하는 것까지 모두 주민들과의 회의를 통해 결정했고, 주민들의 의견 위주로 반영되었습니다”(장윤승, 구로구 도시재생과 주거환경관리팀 주무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3차례나 열린 주민워크숍에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주민들은 함께 동네를 다니며 주거환경 실태를 조사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도로·보도 정비, CCTV 설치, 가로등과 보안등 교체, 쌈지공원의 필요성 등 지역의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안을 논의했다. 또 온수동의 주민공동이용시설인 ‘온수골사랑터’ 같은 선도사례를 탐방하기도 했다.

**주민 참여를 넓히기 위해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속하다**



이러한 사업 진행을 위한 프로세스도 중요했지만, 주민협의체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반에 대한 다른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넓혀나가기 위해 지속적인 마을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환경에 좋은 'EM효소 빨래비누 만들기', 마을 내 독거노인에게 반찬을 제공하는 '만들고 나누고', 골목축제를 통해 상가활성화 및 주민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버들마을 주막거리' 등을 열었고, 작은 동아리 중심의 활동도 펼쳤다. 색소폰 동아리인 '한울타리'의 마을행사 지원과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활동 동아리 '하모니카' 등이 대표적이다. 그렇게 한 달에 3~4회씩 만나서 회의도 하고, 같이 밥도 해먹으면서 주민들은 마을공동체의 즐거움을 하나씩 알아갔다. 또한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고 해결하는 과정을 거치며, 주민들은 집을 허물고 아파트 같은 고층건물을 세우지 않아도 지금 살고 있는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단순히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지요. 동시에 물리적 주거환경이 조금씩 개선되면서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어요.”(박정아, 지역재생활동가)

오류2동 주민협의체는 단순히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을공동체 활동에 꼭 필요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만들기 위해 꼬박 1년 동안 적당한 부지를 찾아다녔다고 한다. 그 결과 주민들의 이동이 많은 재래시장 안에 부지를 선정하고 구로구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자문을 거쳐 2017년 8월 드디어 부지를 매입할 수 있었다.

### 공공건축가와 주민이 함께 설계한 공간

부지는 생겼고, 이제 필요한 것은 어떤 공간을 만들어낼 것인가였다. 주민협의체는 이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서울시 '공공건축가제도'를 활용했다. 2018년 1월 공공건축가와 첫 설계회의를 시작했고, 최종 설계안이 나오기까지 총 3차례의 설계회의를 통해 오류2동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은 무엇인지 의견을 주고받았다. 그 과정에서 공공건축가는 먼저 주민들의 공동이용시설에 원하는 바를 듣고, 총별 주요 공간에 대해 논의를 했다. 그 과정에서 설계도면은



공감은 1층 카페를 통해 문턱을 낮추며,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계속 수정되었다. 1층과 계단을 연결하자는 설계안은 2층에 별도의 강당을 만들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대로 수정되었다. 3층 주방의 개수대 개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도 주민들의 요구였다. 그 외에도 1층 카페에는 유리문을 설치하여 별도의 소모임 공간을 만들었고, 2층 강당공간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 슬라이딩 가벽과 무대를 설치하기로 의견을 조율했다. 이렇게 여러 번의 설계 변경을 거치며 2019년 10월, 다양한 세대가 함께 소통하는 지역의 공동 문화공간인 '버들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주거환경 개선에 성공한 후 자연스레 거점공간 조성으로 주민의 뜻이 모인다

마을스토리 공감'이 문을 열었다.

'버들마을스토리 공감'은 지상 3층 건물로 1층 마을카페, 2층 생활문화지원센터, 3층 마을부엌으로 구성됐다. 1층 마을카페 '스토리 공감'은 마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한다. 단순히 식음료만 판매하는 공간이 아니라 떡케이크 만들기 수업이 열리거나 숨씨 있는 주민들이 만든 손뜨개질 공예품을 전시 판매하기도 하는 등 문화공간의 기능도 톡톡히 한다. 특히 이곳의 바리스타는 건물 3층 바리스타 교육장에서 '바리스타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한 주민이다. 2층의 생활문화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 주민들은 서울시 생활문화지원센터 공모사업과 구로문화재단 '생활합창단' 사업 및 주민센터와도 연계하여 난타소리, 노래교실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때론 지역의 자원이라 할 능력 있는 주민을 강사로 발굴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통기타 감습이다. 직접 마을에서 배우고 싶은 선생님을 찾아 모시고, 수강생들이 삼삼오오 그룹을 짓는 '선 수강생 모집, 후 프로그램'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역의 숨은 실력자,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場)'을 만드는 셈이랄까. 또 2층은 공간 대여를 통해 주민총회, 지역 내 유치원 행사, 마을잔치와 같은 크고 작은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행사 대관이 가능한 것은 '강당'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주민들의 뜻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김순자 주민협의체 부회장은 “그동안은 많은 주민이 모이고 싶어도 만날 수 있는 곳이 마땅하지 않았어요. 동주민센터가 협조해서 마을에서 행사를 하려면 학교 강당이나 새마을금고 지하 강당을 빌려





지역 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바리스타 교육.

썼는데 이곳이 이렇게 마을회관 역할을 해주는 것이지요”라며 뿌듯해했다.

3층의 마을부엌은 요즘 바리스타 교육장 및 시험장으로 쓰인다. 한국음료직업교육개발원과 협약을 맺은 후 2019년 ‘실버 바리스타’ 모집을 시작으로 2021년 8월 기준 3기 바리스타 교육을 진행, 현재까지 16명의 바리스타를 양성했다. 그 중 3명이 1층 마을카페에서 바리스타로 근무하고 있다.

#### 마을경제공동체, 지역자원 연계로

##### 마을 비즈니스를 꿈꾸다

버들마을스토리 공감의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다. 서울시는 2019년 10월 개관을 앞두고 시설관리는 구로구에 위임하고, 시설 운영권은 오류2동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공동체운영회(비영리단체, 이하 운영회)에 무상 사용하도록 했다. 운영회는 사업계획단계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활동했던 ‘주민협의체’에서 전환된 조직이다. 즉 구성원 대부분이 3년 동안 주민협의체 활동을 했기 때문에 관련 사업과 마을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갖춰져 있었던 셈이다.

운영회는 정기총회를 거쳐 구성된다. 2018년 10월 처음 구성된 주민공동체운영회는 정기총회에서 선정된 임원과 회원이 직접 오류2동 주민을 대상으로 찬반동의를 받았으며, 주민 중 10%의 동의를 받으며 오류2동 마을공동체 활동의 대표성을 확보했다. 2021년 3월에는 두 번째 정기총회를 거쳐 새로운 임원 6명을 선출했다.

이러한 운영회는 버들마을스토리 공감의 운영주체로서 주민협정 제정 및 변경의 제안·운영, 마을공동체 관리규약 작성, 마을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구상과 그와 관련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이곳은 서울시와 구로구에서 운영보조금(시설관리비)으로 연간 600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 그 외 기타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 등은 카페와 대관에서 나는 수익으로 충당하고 있다. 마을카페에서 월 평균 400만원 정도의 매출이 나지만, 인건비와 재료비, 공과금을 내면 사실 남는 건 많지 않아 운영회의 고민이 깊다.

2019년 개관할 때부터 자립 운영에 대한 의지가 있었기에 원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 생각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마을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하고 현재는 주민 누구나 조합원이 되는 일반협동조합으로 방향을 변경, 법인화를 추진 중이라고 한다. 마을경제공동체의 재정자립을 위해 이들이 가장 먼저 목표로 삼은 것은 전문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마을의 다양한 세대들이 거점공간을 통해 전문기술을 습득하고 일자리도 연계할 수 있게 만들고 싶은 것이다. 그 시작점은 바리스타 아카데미다. 3층의 바리스타 자격증 시험장을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구직자 및 재직자가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해 배울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2층 강당은 생활문화센터로 운영되며, 주민 대상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

두 번째 목표는 마을카페 프랜차이즈 사업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축적한 마을카페 노하우를 활용해 마을카페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지역의 마을카페를 대상으로 카페 브랜딩과 메뉴 개발, 홍보 마케팅 지원, 공간 시공이나 인테리어까지 카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컨설팅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그 외에도 운영회는 마을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인과 함께 지역상권 활성화 작업을 하고 있다. 지역상권이 살아야 마을공동체도 함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버들마을스토리 공감이 위치한 곳은 오래전부터 동네 재래시장으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 중인 마을카페, 마을 바리스타를 육성하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역할하다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2층 계단 위치 변경.

로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정식 등록이 되지 않은 미인가 재래시장이다. 온누리 상품권 사용도 안 되다 보니 점점 시장을 찾는 사람들도 줄어든다고 있는 상황이어서 운영회는 꾸준히 상인들을 설득해 지난 7월, 60개 점포의 상인들이 참여하는 ‘상인회’를 구성, 구청에 등록을 마쳤다. 운영회와 상인회는 올해 소상공인협회에 ‘오류단길’이라는 이름을 등록하여 ‘골목 상점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이러한 경제자립을 위한 다각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버들마을스토리 공감의 가장 큰 성과는 마을 깊숙이 뿌리 내린 공동체의식일 것이다.

마을카페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것을 계기로 운영회에 들어온 천지혜 총무는 “제가 처음 이곳에 간다니까 또래 친구들은 ‘왜 거기서 일해?’라며 의아해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친구들의 생각도 변했어요. 동네 어른들부터 오전에는 유모차를 끌고 오는 엄마들, 오후에는 주변 대학생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카페를 방문하는 걸 눈으로 직접 보게 되니까요”라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송인태 주민협의체 부회장은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가 아니라 이곳에 와서 마시는 것이 좋다는 주민들이 많아요. 함께 고민하고 설계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오류2동 주민들에게 이곳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공간’으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라며 주민들의 변화를 강조한다.

주민들이 직접 주체가 되어 낙후된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공동이용시설이라는 거점을 만들어 스스로 운영하며 앞으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버들마을스토리 공감. 이들의 노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 경영의 결실을 맺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CASE 6

# 봄의마을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복합시설

## Specification

- **위치**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18
- **규모** | 종합교육센터 지상 4층(연면적 644.78㎡), 여성문화센터 지상 3층(423㎡), 청소년문화센터 지하 1층 지상 4층(1,574㎡)
- **사업기간** | 2009~2011년(2011.11.~12. 개관)
- **총사업비** | 164억 9,900만원(국비 58억 4,200만원\*, 도비 41억 8,300만원, 군비 64억 7,4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 농어촌생활공간문화 개선사업 등
- **운영비** | (종합) 10억 600만원, (여성) 약 2억 2,100만원, (청소년) 약 5억 2,700만원
- **시설소유** | 서천군
- **운영주체** | (종합) 서천군 자치행정과 평생교육팀, (여성) 서천군여성단체협의회, (청소년) 서울 YMCA
- **연락처** | 041-950-4623



키워드  
**지역단체 운영, 지역거점 복합시설, 청소년 기획**



운영기간  
**10년**



운영위원회  
**7명(여성), 9명(청소년), 17명(종합)**



프로그램  
**41개(여성), 168개(청소년), 35개(종합)**



축구장 만한 넓은 광장을 중심으로 대형 건물 3개가 마주보고 서 있다. 지방 소도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세련된 건축 디자인과 규모로 보는 이들을 압도하는 이곳은 충남 서천 봄의마을이다. 봄의마을은 여성문화센터, 청소년센터, 종합교육센터 등 여성, 아동, 청소년, 어르신 등 이용 주체가 서로 다른 센터가 한곳에 모인 복합문화공간이다. 공공을 위한 교육·문화 시설인 이곳에 와서 엄마와 아이는 각자의 활동을 펼칠 수 있고, 글을 읽지 못했던 어르신은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기도 하고, 청소년들은 자유롭게 뛰어논다. 오랫동안 변변한 문화시설이 없었던 지역 주민들에게 그야말로 '봄'과 같은 곳이다.

2011년에 개관한 봄의마을은 건축물의 멋과 공공성을 인정받아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2012 한국건축문화대상 사회공공부문 대상을 수상했고, 대한건축가협회에서 선정하는 올해의 건축 베스트7에 선정되었으며, 같은 해 한국문화공간 건축학회에서 수여하는 2012 대한민국공공건축상을 수상했다. 이러한 건축적인 성과보다도 더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이 있다. 공공시설 복합화를 통해 지역에 교육과 문화의 꽃을 피우는 활력소이자 배움터, 사랑방이 될 거점을 성공적으로 실현했기 때문이다.

## 지역 소도시 다양한 계층의 욕구를

### 해결하기 위한 대안

봄의마을 사업은 조성과정부터 '공공성'을 중심에 뒀다. 하지만 그 과정은 그리 쉽지 않았다. 때는 2000년대 초반, 지역경제 위축, 인구 감소 등 소도시가 갖는 어려움은 서천읍이라고 다르지 않았다. 2003년부터는 초고령사회가 될 정도

주민참여 선도사례



로 지역의 고령화 문제도 심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4년 도시정비 계획으로 서천 재래시장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지역갈등이 불거졌다. 소도시에서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기능을 하는 재래시장은 주민들과 상인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라졌고 고풍만 남았다. 부지의 활용 문제를 두고 주민들 간의 갈등도 악화되었다.

재래시장 이전으로 촉발된 주민의 불만과 지역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천군은 2006년 3월, 문체부 농어촌생활공간문화 개선사업에 지원했다. 공모에 당선되면서 구도심 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봄의마을의 시작이었다.

농어촌생활공간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천군은 사업 계획 단계부터 주민과 함께했다. 2006년 8월, 민관협력체인 봄의마을만들기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가 결성됐다. 추진협의회는 서천읍내 마을대표, 상인대표, 서천군회의의원, 서천군청 관련 실과장, 서천군 신활력사업FD 등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민관협의체이다. 이들은 '봄의마을서천만들기'라는 이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방향을 논의했다.



추진협의회는 1, 2, 3차 단계별 조사를 통해 사업의 틀을 구체화해갔다. 주민과 행정 간의 이해를 증진하는 토론 자리를 가졌고, 주민과 행정이 도시현황을 함께 분석했다. 서천군은 주민들과 대면 면담 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기울여 들으며 주민과 신뢰를 쌓았다. 동시에 도시재생, 도시경관, 도시건설 관련 행정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꾸려 실무회의도 병행했다. 봄의마을의 사업계획 단계에서 눈에 띄는 점은 행정과 주민이 팀이 되어 사업방향과 의미를 정립하는 한편, 전문가 중심의 자문단을 꾸려 도시가 직면한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재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업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를 통해 사업내용을 수정·보완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객관적 조사 과정을 통해 주민들은 서천이 직면한 어려움이 단순한 시장 이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인구 감소로 인한 구도심 공동화, 교육과 문화시설 부재에 따른 주민들의 도시이탈 증가라는 복합적인 상황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추진협의회와 행정은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고, ‘중천 어메니티 복지마을’을 모델 삼아 가칭 어메니티 서천을 부지 안에 물리적으로 구현해보자는 방안을 도출했다.

“서천군은 2003년에 이미 초고령화에 진입했고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어메니티 복지마을을 조성했어요.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노인복지관 등의 시설 등을 만든 건데 그 사업이 매우 성공적이었어요. 어메니티 복지마을이 노인을 위한 복합시설이라면 봄의마을은 여성, 청소년, 노인 등 다양한 세대를 위한 복합시설이 되고자 한 거죠.”(오은순, 서천군 사회복지실 여성청소년팀장)

주민 이용을 고려한 운영주체 선정

2008년 시작된 봄의마을 조성사업은 주민과 행정의 신뢰를 쌓으며 추진되었다. 서천군은 서천읍 주민자치위원회를 사업 운영주체로 선정했고 기존 추진협의회를 봄의마을 만들기 지원위원회로 전환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지원하게 했다. 이처럼 사업계획부터 추진, 설계 과정까지 주민과 함께 만들어진 봄의마을은 총 3개 동으로 이뤄져 있는데, 종합교육센터는 지상 4층, 여성문화센터는 지상 3층, 청소년문화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되어 있다. 종합교육센터는



봄의마을이 탄생하기까지의 시간과 과정을 기록해둔 '기억저장소'.

복합문화공간 봄의마을은 사업초기단계부터 주민과 함께 하여 주민 활용도가 높은 시설 조성이 가능했다



주민 모두에게 열린 공간, 종합교육센터 홀



종합교육센터에서 진행 중인 성인문해 교실.

각 센터 운영주체는 서천군이 지역사회 단체에 제안하고 공모과정을 거쳐 선정했다.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설계된 곳인 만큼 각 센터가 건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그 결과 1984년 설립되어 2011년부터 서천군에서 여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해온 지역단체인 서천군여성단체협의회(한국여성단체협의회 서천지부)가 여성문화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다. 청소년문화센터는 서울 YMCA에서 위탁운영하게 되었다. 1903년 설립된 이래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및 청년활동과 성장에 공헌해온 서울 YMCA가 위탁을 맡게 된 배경에는 초기 서울YMCA 운동에 공헌한 민족지도자인 이상재 선생의 고향이 서천군이라는 연결지점이 있다고, 종합교육센터는 서천군 자치행정과 평생교육팀에서 운영한다. 2007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기도 했던 서천군의 평생학습교육 관련 사업을 진행하며 서천군 평생학습교육의 허브를 꿈꾸고 있다.

주민 만족도가 높은 세 센터의 운영비결은 ‘높은 주민 참여율’

봄의마을은 이용자별 시설 만족도가 높은 편인데, 그것은 센터별로 조직되어 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 덕분이다.

여성문화센터는 여성문화센터장, 주민, 서천군 사회복지실 여성청소년팀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한다. 매년 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여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진행하고 있다. 또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지역강사를 섭외해 주민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연다. “일주일에 약 33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경력단절여성 취



업교육, 양성평등주제별 요리교실, 일반교양, 악기, 건강스 포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수업이 열리고요. 전체 수강인원이 500명 정도가 될 정도로 참여가 높고 수업에 대한 요청도 적극적입니다. 주민의 요청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나선환, 여성문화센터 팀장)

종합교육센터는 서천군 자치행정과장, 평생교육사, 서천군 평생교육학습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한다. 서천군 평생학습교육 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수업을 진행한다.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대학입시 기반의 학력 신장 교육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서림학당도 이곳에서 운영한다.

“농어촌 지역이라 교육 여건이 열악하고 대학교 입시 학원이 부족한 서천읍에서 중고등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서림학당이에요.”(신진숙, 자치행정과 주무관)

그 외 18개의 정규 강좌가 열린다. 인근 대학과 연계한 프로

그램도 연다. 어르신들을 위한 성인 문해교육 수업도 운영한다. 서천군 13개 읍면에서 진행되는 별별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아동에서 어르신까지라는 평생학습교육의 취지에 기반하여 아동, 어르신, 결혼이주여성 등 학습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다양한 세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별별학교의 이름은 평생학습을 통해 각각 구별되는 사람으로 성장해서 모두 함께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거리자라는 의미예요. 서천군 평생학습교육의 비전과 맞닿는 뜻이죠. 이 비전을 잘 담은 공간이 종합교육센터라고 생각해요. 교육의 기회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종합교육센터가 거점이 되어 더 많은 주민에게 배움의 장을 마련해드리고 싶어요.”(조선예, 자치행정과 평생교육팀 평생교육사)

청소년문화센터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로 구성된 청소년운영위원회와 서천군 사회복지실장, 청소년 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센터 운영위원회를 함께 운영



주민들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고자 종합교육센터에는 컴퓨터실도 있다.



청소년문화센터 대강당은 주민들의 체육 교실로도 활용된다.

한다. 이곳 역시 매년 시설 및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반영한다. 그 노력의 결과로 매년 청소년 이용 빈도수가 늘고 있다고.

“청소년시설 및 프로그램 욕구 조사를 1년에 한 번씩 진행합니다. 시대 흐름이나 유행에 맞춰야 하고 청소년들의 요구도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센터도 계속 변화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지루하지 않은 공간이 되기 위해 계속 고민하는 거죠. 그렇게 조금씩 시설을 정비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해요. 2019년에는 북카페였던 공간을 VR실, PC게임실로 바꿨습니다. 필요한 장비는 군 예산지원을 받았어요.”(구남욱, 청소년문화센터 부장)

청소년문화센터의 대표 프로그램은 2012년 시작된 방과후 아카데미다. 다문화, 소외계층 청소년 가운데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여성가족부와 서천군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한다. 급식 지원, 안전 귀가 지원까지 평일 5일을 운영 중이다. 그 외에 청소년이 서천읍에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Y-열린행정 프로그램,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청소년동아리활동, 청소년봉사활동도 하고 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동아리활동, Y-열린행정 프로그램, 봉사활동 등은 청소년이 자체적으로 기획·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시설 운영에도 참여한다. 센터 운영위원회와 함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

“청소년문화센터는 청소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자신들이 의견을 표출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센터 운영에 참여하고 사업에도 관여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하는 거죠. 실제로 청소년들의 제안을 통해 서

천읍 곳곳에 횡단보도가 생기는 등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이정훈, 청소년문화센터장)

## 센터들 간 협력으로 다양한 세대가 소통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

봄의마을은 세 개 시설이 광장을 중심으로 모인 덕분에 센터들 간 긴밀한 연계가 가능하다. 여성문화센터에서 넓은 강당이 필요할 때 청소년문화센터의 대강당을 사용하는 식이다. “센터별로 협력해서 운영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는 강당이 넓으니 원하시면 빌려드릴 수 있고, 별별학교에서 청소년 대상 강좌를 열 때 우리 센터와 연계하여 청소년문화센터에 방문한 청소년들도 별별학교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고요.”(이정훈 센터장)

광장을 통해서 다양한 세대, 계층이 모이는 축제도 열 수 있다. 센터별로 축제를 열 때면 다른 센터에 방문한 주민이 자연스럽게 축제에 어울리면서 주민 화합의 장이 되기도 한다. 다양한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것은 이곳의 큰 장점이다.

“한 가족이 왔을 때 아버지와 할머니는 종합교육센터로 가고, 청소년은 청소년문화센터에 가고, 엄마들은 여성문화센터로 가서 즐길 수 있는 곳이죠. 모든 가족구성원이 어울리고 즐길 수 있는 편리성이 높다는 게 가장 큰 장점 같아요.”(신진숙 주무관)

봄의마을이 조성된 후 지역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려 다른 도시로 갔던 주민들이 봄의마을로 오게 되면서 주민의 만족도가 높아진 점이 대표적이다.

“도농간 문화 격차가 상당히 심각했는데 지금은 서천군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도 문화, 교육적 프로그램 수준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문화시설이 없어서 귀농, 귀촌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봄의마을이 생기면서 그런 분들에게 안심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 나름대로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홍성희, 여성문화센터장)

주민과 행정이 신뢰를 쌓으며 사업을 계획하고 전문가와 협의하여 완성된 봄의마을. 지역사회의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지역단체를 운영주체로 선정하여 '주민이 중심'이라는 가치를 지키고, 매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끊임없이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서천 봄의마을은 주민 중심의 복합문화시설의 모범사례가 된 것이 아닐까.



CASE 7

# 제주 누리터

주민의 자발적 노력이 빛난 공간

## Specification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로 218
- **규모** | 2개 동 지상 1층(대지 6,142㎡, 본관(누리터) 90㎡, 별관(수놓음육아나눔터) 81.42㎡)
- **사업기간** | 2018.1.~12.(2019.3.3. 개관)
- **총사업비** | 1억 5000만원(지역균형발전지원사업비 1억, 수놓음공동육아지원 공모사업비 5000만원)
- **운영비** | 연간 약 1억(제주도비 일부)
- **시설소유** | 제주도교육청
- **운영주체** | 유수암상동마을회
- **연락처** | 064-799-9563



키워드  
**폐교 무상대부, 주민주도 운영, 문화 플랫폼**



강의 프로그램  
**70**여 개(연간), **655**회(17~21년)



한 주(週) 진행 프로그램  
**40**여 개



지역협력기관  
**9**개



주민참여 선도사례



(왼쪽부터) 박현숙 누리터 팀장, 문태정 유수암상동마을회장



창고였던 공간은 수놓음육아나눔터로 재탄생했다.

**누리터가 있는 마을 이름**은 금덕단지다. 행정구역상으로 유수암리 7반에 해당하는 이 지역은 1970년대 제주시 중산간 축산진흥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중산간 마을'이다. 중산간 마을이란 해발 100~300미터, 제주도의 한라산과 해안 중간에 있는 마을을 의미하는데, 물을 구하기 쉬운 해안마을에 비해 척박한 환경으로 옛날부터 낙후된 곳이다. 금덕단지는 거주민이 없던 중산간에 정부가 외부 이주민을 정착시켜 개발한 개척단지다. 이주민들은 직접 생활할 환경을 꾸려나가기 시작했다. 개인 사유지를 교육청에 내놓아 아이들이 다닐 학교를 지어달라고 요청하여 세워진 금덕분교가 그중 하나다. 하지만 1980년대 유초등 학령인구가 크게 줄면서 마을 내 유일무이했던 금덕분교는 폐교하게 되었고 이후 30년간 방치되었다. 그랬던 금덕분교가 2017년 주민들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다. 주민들의 자발적 노력에 의해 세워졌던 금덕분교는 30년 전과 똑같은 열정을 가진 주민들에 의해 '누리터'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했다. 금덕분교에서 자녀들을 졸업시킨 부모와 마을을 오랫동안 지켜온 주민들, 새롭게 정착한 이주 주민들 그리고 이러한 주민들의 의지를 성심껏 돕는 행정과 전문가들이 합심하여 이룬 결과였다. 그 결과 이제 누리터는 아이들을 돌보는 공간, 젊은 엄마들의 사랑방, 아이와 어른 모두를 위한 교육, 문화, 체육, 공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리는 복합문화교육시설로 자리잡았다.

### 주민들의 지혜와 노력으로 30년 만에 되찾은 학교

폐교가 주민들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제주도가 시행한 '시골학교 살리기 운동'이 있다. 제주도는 도

시로 빠져나가는 젊은 부부가 많아지고 유초등 학령기 인구가 줄어들면서 폐교 위기에 처했던 시골학교를 살리는 정책을 2010년부터 추진해왔다. 방과후 프로그램이 개설되고 학교 운동장에 잔디밭이 깔리는 등 교육환경이 개선되면서 다시 제주를 찾는 부부들이 많아졌다. 이 당시 제주 이주 열풍도 불기 시작하면서 애월읍 유수암리 지역에도 이주 주민이 증가했다. 애월읍은 제주도에서 이주 정착민으로 인한 인구 증가가 가장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 특징적인 것은 애월읍 정착주민들 중 유초등 학령기 자녀와 3~40대 부모로 구성된 세대가 49.2%로 가장 많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세대 구성으로 인해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교육, 문화 환경에 대한 부모들의 욕구가 커졌다. 동시에 젊은 부모들도 교육 문화에 대한 욕구가 커지던 상황이었다. 2017년, 주민들이 나서서 오랫동안 방치되던 폐교를 활용하기로 하면서 교육청과 무상임대 계약을 체결했고, 그 결과 주민들이 바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되었다. "폐교는 2010년부터 민간기업이 활용하고 있었어요. 학교 운동장에 빈 컨테이너 박스를 세우는 등 무분별하고 지저분하게 사용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상태였죠. 이런 상태에서 젊은 부부들이 정착하고 문화적 환경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이참에 폐교를 우리 마을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보자고 주민들이 나서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 여기에 아이들이나 주민들을 위한 교육, 문화 시설이 하나도 없었으니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자는 데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던 주민들도, 지역에 이주해온 주민들도 모두 찬성했죠."(문태정, 유수암상동마을회장)

무상임대 체결을 추진한 것은 금덕단지에 먼저 정착한 주민



들이었던 유수암상동마을회 회원들이었다. 이곳에서 40년 이상 살아온 문태정 대표도 그중 한 명이다. “제 딸이 금덕분교 마지막 졸업생입니다. 저는 폐교되기 전에 여기에서 근무도 했었고요. 저한테는 참 애뜻한 곳이지요. 금덕분교를 기억하던 주민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민들이 참 열심히 했습니다.”(문태정 대표)

그렇게 금덕분교는 2017년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왔다. 주민들은 애지중지 폐교를 가꿔나갔다. 자원봉사자로 나선 주민들은 오래된 마룻바닥과 곰팡이 슨 벽을 닦고 청소했고 재능 있는 주민들이 강사로 나섰다. ‘누리터’라는 이름도 주민들이 직접 공모하여 결정한 이름이다.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 주민들만의 세상’이라는 의미로 ‘한껏, 마음껏, 제주껏’이라는 슬로건도 있다. 유수암마을회 구성원 중 뜻 있는 주민들이 누리터운영위원회(이하 ‘누리터팀’)를 구성하여 누리터 발전 방향과 사업 추진 및 진행을 이끌었다. 하지만 주민들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인 점이 많았다.

“70년대 세워진 폐교는 너무 낡아 리모델링이 절실했어요. 주민들끼리 약초 김치 만들기, 인형 만들기 등 서너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했지만 누리터 운영이 지속되려면 언제까지고 주민들의 재능기부에만 의지해서는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고민이 있던 와중에 예전 마을회 회장님이 읍면동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사업에 지원해보자고 제안해주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주민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지원했고 당선되어 2018년부터 5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박현숙, 누리터팀장)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사업이란 제주도에서 균형발전을 위해 2015년부터 추진해온 정책사업이다. 2012년 관련 조례 제정에 기반하여 설립된 제주연구원 산하 지역균형발전센터가 사업을 추진하며 현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특히 읍면동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사업은 주민주도사업으로 주민이 마을의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여 사업공모부터 진행까지 직접 주민이 주도하여 추진하는 특징이 있다.

“주민들이 함께 마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안하고, 스스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본 사업의



누리터 기타반 모습.

성과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덕단지의 누리터도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고요.”(신미옥, 제주도 정책기획관실 균형발전팀 주무관)

#### 문화·스포츠·예술 수업이 열리는 애월읍 주민들의 명소

누리터는 지역균형발전지원사업에서 받은 사업비로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3D 프린터, 컴퓨터 등 프로그램에 필요한 집기를 구입해 광고, 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여 누리터 프로그램을 알리는 데 활용했다. 강사로 보조금을 받게 되면서 보조

금만큼 아끼게 된 비용을 모아 누리터에 상근하는 정규 직원도 고용했다.

“자기 생업이 있는데도 자원봉사, 재능기부를 해주시는 주민분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일 하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근직, 주말에 일하실 분이 필요했는데 다행히 좋은 분을 고용할 수 있었어요. 누리터에 오시는 분들에게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수 있게 되면서 누리터를 찾는 방문객도 더 많아졌어요.”(박현숙 팀장)

2018년에는 수놓음공동육아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균형발전사업비용만으로는 미처 손보지 못하여 창고로 쓰던 공간을 리모델링하기도 했다. 누리터와 잘 맞는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창고로 쓰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수놓음육아나눔터’란 이름의 아동 돌봄시설을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육아나눔터가 생기면서 애월읍에 사는 유초등 자녀들이 있는 젊은 부부들 사이에 입소문이 퍼졌고 누리터를 찾는 사람들도 증가할 수 있었다.

개관 당시 3~4개에 불과했던 누리터 프로그램은 해가 갈수록 수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누리터운영위원회



수놓음육아나눔터 '과학탐험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아이들의 모습.

주민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만든 공간. 누리터에서는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원주민과 이주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진행한다

의 경험이 쌓이면서 더욱 다양해졌다. 여기에 지역균형발전지원사업의 지원이 더해지며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강사 발굴과 섭외도 주민들이 직접 했어요. 그렇게 강사 데이터가 쌓이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었죠. 여기에 지역균형발전센터에서도 추가적으로 강사 인력 정보를 제공해주셨어요. 덕분에 더 좋은 수업을 여는 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박현숙 팀장)

유아·아동 영어동화, 유아·아동 발레, 성인 하타요가, 성인



‘굿볼 수업’은 30대부터 50대까지 주민 호응이 높다.



‘작은 음악회’ 등의 행사가 열리면 주민들은 자원봉사자로 참여한다.



티클래스, 성인 어반스케치, 서핑, 양궁, 승마 등 제목만 봐도 질 좋고 다양한 프로그램임을 알 수 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연간 50~70개 정도 진행되고 있다. 프로그램들은 아이와 성인, 때로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로 마련되고 있고 교육과 문화뿐만 아니라 스포츠까지 아우른다. 이들 프로그램은 대부분 유료 강의다.

유료 강의·지역연계 수업 등 지속가능을 위한 노력

누리터운영위원회는 운영 초기부터 지속가능성을 고민했다. 운영비, 유지비, 인건비 등 필요한 비용에 대한 행정의 지원이 없는 만큼 어떻게 해서든 주민들의 힘으로 꾸려나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강의에 수강료를 받는다. 주민들이 낸 수강료는 강사비, 건물 유지비 등으로 쓰인다. 제주도 내의 다른 교육, 문화 시설과 연계하여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아동 목공, 아동 승마가 대표적이다. 승마장, 공방, 음악스튜디오 등과 협력을 맺어 해당 기관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지역연계 수업을 통해 누리터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더 많은 주민참여가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운영하는 데 있어 부족한 비용은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누리터의 취지에 공감하고 누리터를 아끼는 주민들의 자발적 기부는 누리터의 든든한 비빌 언덕이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트램펄린도 주민들의 기부로 마련되었다.

누리터운영위원회는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누리터 운영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모사업을 주민들이 스스로 찾아내 사업계획서를 써서 지원하는 것이다. 정착주민과 함께하는 협치지원프로그램에 당선되어 우수암상동



야외에서 아동 양궁 수업이 열리고 있다.



지역 단체와 연계하여 진행한 '서핑 수업' 현장.

마을 벼룩시장을 열기도 했고,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당선되어 놀이터, 야외무대를 짓기도 했다. 작년에는 환경부 전기차충전시설 보급사업에 지원하여 운동장 주차장 한편에 전기차 충전기도 갖추었다. 일하는 청년 제주뉴딜일자리지원사업으로 인력을 보충하기도 했다. 그 외에 음악회, 플리마켓, 콘서트, 세미나 등의 행사도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한다. 2020년에는 '꿈꾸는 폐교 음악회'라는 이름으로 양인모 바이올리니스트, 원재연 피아니스트를 초청해 콘서트를 열기도 했다. 이런 행사가 열리면 주민들이 주차요원도 하고, 행사 진행도 하는 등 자원봉사로 참여한다. 박현숙 팀장은 "힘들지만 이런 크고 작은 행사들이 누리터를 알리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했다.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애월읍에서도 많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이런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의 결과, 누리터는 현재 지역주민뿐 아니라 애월읍 사람들, 멀리서 사는 사람들까지 찾아오

는 명소가 되었다. 방문객이 많아진 만큼 누리터는 더욱 다양한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해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선보이기 위해 열심이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센터의 컨설팅은 누리터운영위원회의 자립심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누리터를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와 현실적인 조언을 주셨어요. 경영 방향, 브랜딩, 마케팅 등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도움을 받았죠. 중간중간 저희가 지원하면 좋을 공모사업 정보도 공유해주셨고요. 누리터의 파트너라고 생각해요. 덕분에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옳은지 점검하면서 갈 수 있었고, 주민간 불협화음 없이 누리터가 성장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되어 주었다고 생각해요."(박현숙 팀장)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지원사업의 경우 제주도 균형발전팀이 지역균형발전센터를 지원하고, 해당 센터가 주민을 돕는 삼각형의 구도로 진행된다.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센



누리터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치매예방 교육도 열린다.

터는 주민들과 밀착하여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돕고 있다.

주민주도 운영을 위하여

마을회(유수암상동마을회)에서 시작하여 누리터운영위원회로 발전하여온 주민들은 누리터사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 2019년 주식회사 누리터를 설립했다.

"수강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아 설립했어요. 마을회 고유번호증으로는 수익사업을 할 경우 마을회장의 개인사업자로만 가능한데, 마을회장님은 2년마다 한 번씩 바뀌거든요. 2년마다 개인사업자를 새로 등록해야 한다는 건데, 번거롭더라고요. 별도 법인 설립이 필요할 것 같아 마을회에서 주민들과 논의했고 그 결과 주식회사 형태로 결정이 났습니다."(박현숙 팀장)

주식회사 누리터는 누리터운영위원회 산하조직으로 누리터에서 번 수익은 전액 누리터 운영에 사용되고 있다.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주민들만의 공간을 주민주도로 꾸려가는 굵덕단지 주민들. 끊임없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모으고 스스로 발로 뚫은 주민들의 노력이 지금의 누리터를 만들었다. 더 많은 주민에게 더 많은 프로그램과 더 편리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이곳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주민 자율 운영으로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룬다



## PART 02

# 생활SOC와 사회적경제

- 08 외골문화회관
- 09 성수나눔공유센터
- 10 위스테이별내 커뮤니티센터
- 11 수수헌
- 12 연암서당골 문화센터



공모전  
우수상

CASE 8

# 외골문화회관

주민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확장되는 선한 공동체

## Specification

- **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세월천로 82
- **규모** | 지상 2층(대지 2,175㎡, 연면적 358.11㎡)
- **사업기간** | 2011~2013년(2013.10. 개관)
- **총사업비** | 8억 3,000만원(국비 2억\*, 시비 1억, 상생기금 4억, 구비 1억, 자부담 3,000만원)  
\*행정안전부, '희망마을만들기' 공모사업
- **운영비** | 연간 약 6,133만원(자체조달)
- **시설소유** | 부평구
- **운영주체** | (사)우리동네희망마을
- **연락처** | 032-508-0206



키워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마을공동체 활동, 재정자립**



지역단체들의 마을공동체 활동  
**20**여년



문화프로그램 참여 주민 일자리 창출  
**8,000**여명(연간) **3**명



지역 네트워크 협약(행정기관 및 공공교육기관, 민간단체 등)  
**17**개



주민참여 선도사례

외골문화회관이 있는 부평동은 1970년대부터 형성된 공업 단지로 '부평4공단'이 있던 곳이다. 당시 부평4공단에는 소 규모 공장이나 공방이 많았고 그 부근인 청천동, 갈산동, 산곡동 일대는 자연스럽게 노동자들의 주거지역이 되었다. 부평4공단 일대에는 젊은 청년 노동자가 모여 들면서 다양한 풀뿌리 움직임이 발생했다. 1989년 맞벌이부부를 위해 무료로 운영하는 햇살 탁아소를 만들었고 이 탁아소는 나중에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어린이집이 되었다. 청년 노동자들의 다양한 소모임 중 1991년부터 활동했던 '책사랑', '책터' 독서모임은 1995년 '터사랑'으로 합쳐지며 지역을 대표하는 청년모임이 되었다. 공부방이 생겨났고, 지역아동센터도 만들어졌다. 이러한 자생적인 지역사회를 위한 흐름은 2001년 '동네아놀자'라는 마을축제로 이어졌고, 이후 2008년에는 '여럿이 함께하는 동네아놀자'(이하 동네아놀자)라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창립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동네아놀자는 2011년 행정안전부의 '희망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참여하며 2013년 (사)우리동네희망마을을 만들었고, 주민을 위한 공동체의 거점 '외골문화회관'을 태동시키게 되었다.

## 마을축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풀뿌리 지역 활동 시작

2001년 '동네아놀자' 마을축제가 열렸던 데에는 1997년 IMF 위기가 있었다. 실업자가 증가하고 동네를 떠나는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점차 공동체가 와해되기 시작할 때, 작은 공장을 운영하던 터사랑청년회 회원이었던 한 청년이 개인 돈 200만원을 내어 '마을경로잔치'를 열자고 제안했다. 그것이 지금껏 이어지고 있는 마을축제 '동네아놀자'의 시작이다. 그동안 지역에서 각각 활동해오던 단체들인 '터사랑' 청년회, 햇살 탁아소,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등 모두 5개 단체가 뜻을 같이했다. 2000년에 준비를 시작한 이들은 이듬해인 2001년 5월 단오날 제1회 마을축제 청천산곡마을단오제 '동네아놀자'를 성대하게 개최했다. 경로대잔치라는 소박한 희망에서 출발하여, 첫째 5개 단체로 시작한 마을축제는 매년 조금씩 더 발전되어 이제는 지역 내 18개 단체가 준비하고, 약 1,500명이 참가하는 부평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 잡았다. 마을축제를 계기로 지역단체들의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이들은 본격적인 공동체 활동을 해보기로 의기투합하고 2006년부터 성미산마을 같은 선진 사례지를 방문하



고 또 학습하면서 어떤 형태의 단체를 만들지 회의를 거듭했다. 2년의 준비기간 후에 만들어진 것이 비영리단체 '여럿이 함께하는 동네아놀자'다.

이들은 지역 내 소외되기 쉬운 대상인 청소년과 이주여성, 외국인근로자에 관심을 가졌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주 여성과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한글교실'을 열었다. 한국 남편들의 과도한 통제로 외부활동에 어려움을 겪던 이주여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네아놀자는 이주여성의 남편들과 족구모임을 결성했다. 그렇게 하여 가정에서의 갈등을 객관적으로 드러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고, 자연스럽게 문제를 해결해나갔다. 또한 족구모임은 이후 동네 장년모임으로 성장했다.

그 외에도 지역 어르신들의 요청으로 '어르신 한글교실'을 열기도 했다. 어르신 한글교실에 참여한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행복해'라는 노인회도 조직되었다. 노인회는 국제적 노인자조조직 헬프에이지와 연계된 활동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지역봉사 및 활동에도 참여하는 지역의 일원으로 성장했다.

그 외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제외된 복지 사각지대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반찬배달을 하는 '홀몸반찬팀' 활동도 했다. 홀몸반찬팀이 만든 도시락을 지역 내 고등학교와 연계해 2인 1조로 조를 짜서 반찬배달 겸 어르신 말벗이 되어 드리는 '효드림' 프로젝트는 다양한 세대가 함께 소통하며, 마을의 안전망을 작동시키는 선순환의 훌륭한 사례이기도 하다.

그 외에 지역의 소상공인, 경력단절여성 등을 발굴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게 발굴, 지원하며 지역의





외골문화회관의 독서공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확장에도 앞장섰다. 대표적인 사례가 동네아놀자의 1호 마을기업 ㈜리폼맘스(윤문정 대표)다. 봉제기술을 가진 경력단절여성이었던 윤문정 대표는 인천도시축전 재활용패션쇼에 폐우산 천과 버려진 모기장으로 만든 우비와 드레스를 출품한 끝에 대상을 수상, 상금 100만원을 받게 됐다. 당시 그녀에게 인천도시축전에 참여하라고 적극 제안한 것이 동네아놀자였다. 그리고 동네아놀자는 그녀가 상금을 종잣돈 삼아 2년 동안 리폼교실을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기도 했다. 그 결과 마을기업 1호가 된 윤문정 대표는 이제 부평구 마을기업협의회 회장을 맡는 등 지역에서 공동체성 확장에 기여하고 있다.

####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필요가 반영된 외골문화회관

그렇게 10년간 꾸준히 지역공동체 활동을 해오던 '동네아놀자'에 2011년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부평구에서 행정안전부의 '희망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신청을 제안한 것이다.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은 10년 이상 활동한 지역의 풀뿌리조직을 대상으로 마을회관을 건립해주는 사업이다. 행정의 입장에서는 당시 '10년'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풀뿌리조직이 많지 않았고, 동네아놀자 입장에서는 지역공동체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거점공간이 꼭 필요했기에 의기투합할 수 있었다.

그렇게 2011년 희망마을로 선정되면서 기존의 동네아놀자 회원들과 어르신들을 포함한 일반 주민으로 구성된 '희망마을 주민협의체'가 만들어졌다. 4년 동안 좁은 공간에서 이주민과 어르신을 위한 한글교실, 지역 내 독거노인을 위한 반찬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늘 '더 넓은 공간'



동네아놀자의 1호 마을기업 리폼맘스.

외골문화회관을 이용하던 주민에서 마을기업 대표가 되어 사회적경제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는 리폼맘스 윤문정 대표.

에 대한 욕망이 있었던 주민들의 참여는 적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수업할 공간이 없어서 커튼을 쳐서 교실을 나눠 쓰곤 했어요. 공간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많았는데 마을회관으로 나라에서 8억짜리 건물을 준다고 하니 너무나 고무적이었죠."(이용우, ㈜우리동네희망마을 사무국장)

공간 건립에 필요한 자부담금 3,000만원 마련을 위해 주민들은 일일주점을 열어 비용을 모았다. 공간을 운영하려면 지금의 비영리단체를 넘어야 한다는 생각에 법인화도 추진했다. 그렇게 2013년 9월 ㈜우리동네희망마을을 설립하면서 이사들에게 후원금도 받았다. 그렇게 모은 자부담금은 법인등록비, 회관 내부 인테리어와 각종 집기 구입 등에 사용되었다.

어디에 외골문화회관을 세울까 논의를 했던 이들은 부평구 산곡동 도시근린공원 외골놀이공원 안에 부지를 선정했다.

'동네아놀자' 사무실과 가깝고 일명 '도깨비시장' 상권이 형성되어 있던 곳이라 주민들의 접근도가 좋을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주민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만큼 건축 설계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동네아놀자에서 진행된 다양



동네아놀자의 활동을 기록한 책자들.

한 교육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넓은 교육장이 필요했고,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방지하려면 방음시설도 필요했다. 미취학 아동 돌봄을 위한 좌식공간인 온돌마루방도 주민들이 제안했고 모두 설계에 반영되었다.

건축 과정에서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1층 카페 내부 인테리어를 지역 가게, 마을 목수, 집수리 업체 등과 함께 진행한 것이다. 인테리어 공사에 참여한 토박이 주민들은 공사 후에도 '동네방네'라는 청장년 모임을 구성하며, 외골문화회관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서는 든든한 동네의 지원군이 되었다.

#### 공동체 활동으로 마을 사람들이

#### 서로 연결되며 관계가 확장되는 곳

1층에 카페 쉼표, 2층에는 다양한 수업이 진행되는 교육장과 도서관이 마련되어 있는 외골문화회관은 지상 2층의 건물이다. 1층 카페에는 연간 약 11,200명 정도의 인원이 이용한다. 기본적인 카페로 쓰이는 외에 마을주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바리스타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마을작은음악회, 인문학강좌, 베란다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행사도 진행한다. 2층에는 지역 아동 및 청소년들의 방과 후 소규모 모임 공간이자 독서공간이 있고, 어르신 한글교실, 요가교실, 민요교실, 노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연간 8,000명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이곳은 지역아동센터, 사회적경제협의회 등의 회의공간, 지역단체들의 송년회 장소, 각종 선거 투표소 등 지역공동체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공간이자 민·관 협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반응은 너무 좋습니다. 어르신 한글교실의 한 어르신은 일주

동네아놀자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경제 인프라를 활용해 토박이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일에 4번은 이곳에 오실 정도로 저희 외골문화회관이 좋다고 하십니다. 처음부터 마을주민 누구나 올 수 있는 사랑방으로 기획했는데 그게 잘 통한 것 같아요. 1층 카페를 통해 외골문화회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알게 되고, 2층 교육장을 통해 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가 이어지길 바랐거든요.”(이충현, (사)우리동네희망마을 대표)

그의 말처럼 카페 ‘섬표’를 통해 외골문화회관으로 연계된 주민들도 늘었다. 대표적인 이가 올해로 7년째 홀몸반찬팀에서 반찬 만들기 봉사를 하는 황영순 주민이다. “등산하고 내려가는 길에 차를 마시러 들어왔다가 공고문을 봤죠. 평소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 생각만 하고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계기를 주니 안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황영순 주민)

그동안 동네아날자에서 진행했던 활동은 모두 외골문화회관에서 진행중이다. 홀몸반찬팀과 홀몸반찬배달팀도 지속하여 활동 중이고, 동네 청장년들이 스스로 장학금을 조성해 불우한 청소년에게 1년간 월 5만원의 용돈을 후원하는 장학사업 ‘용돈장학회’는 물론 홀몸 어르신의 이불빨래, 경로당 방문 등의 활동을 하는 중학생 자원봉사단 ‘마을누리’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또 외골문화센터는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데이’, 토크 콘서트 ‘개꿈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며, 지역의 청소년들이 마을로 들어올 수 있는 역할 역시 하고 있다.

자립운영과 지역사회 선순환의 역사를 이어받다

이처럼 외골문화회관에서 다양한 공동체가 서로 연결되고 지속되는 가장 큰 원동력은 ‘자립운영’이다. 각 소모임들은 자립적으로 활동비를 마련하고 있다. 12년째 운영되는 용돈장학회도, 13년째 활동 중인 홀몸반찬팀도 모두 스스로 운영비를 마련한다. 특히 홀몸반찬팀은 1년에 2번 마을바자회를 열어 모은 연간 700여 만원의 수익금을 1년 운영비로 쓴다. 중학생들로 구성된 ‘마을누리’ 봉사단도 두 달에 한 번 케이크를 만들어 판매하고 그 판매수익금을 통해 활동비를 마련한다. 이런 분위기를 이해하려면 2001년 마을축제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마을축제를 준비하는 5개 단체가 각각 축제 관련 통장을 마련하여 ‘마을축제 기금’을 조성했던 것이다. 이렇다 보니 지역사회 내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모임이 생길 때마다 자연스럽게 모임별 통장을 만들어 100% 자립



적 공동체 활동을 하는 것이 이 지역사회의 관행이 된 셈이다. 이러한 독특한 자립문화를 바탕으로, 외골문화회관도 자립의 길을 걷고 있다.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공간은 조성했지만, 구청으로부터 운영비나 인건비 지원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들은 2013년 마을기업화한 (사)우리동네 희망마을은 카페 ‘섬표’의 운영을 통해 나온 수익금으로 공간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지난 2020년에는 사회적기업 인증도 받았다. 외골문화회관이 2018년 거둔 수익은 8,400만



원, 2019년에는 6,800만원으로 나쁘지 않은 성적표다. 2020년은 3,200만원으로 대폭 감소했는데 코로나19와 재개발(‘뉴스테이 사업’)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외골문화회관과 (사)우리동네희망마을처럼 ‘우리 일은 우리가 스스로 하겠다’면서 자발적인 주인의식을 20년 넘게 발휘해 온 주민을 만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외골문화회관은 관련조례가 별도로 제정되어 있어, 새롭게 2019년에 제정 된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련 조례에 포함하지 못해 운영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전지혜,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 사무국장)

게다가 외골문화회관은 현재 새로운 변화 앞에 놓였다. 2017년, 이곳 일대(청천2구역)가 민간 뉴스테이 재개발지역으로 확정되면서 주민들의 이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 이충현 이사는 “앞으로 외골문화회관 주변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이라 예측했다.

“약 2만 세대가 새롭게 들어오게 되는 지역의 한복판에 저희가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그전까지는 가난한 동네의 공동체였다면 앞으로는 아파트 속의 공동체가 될 텐데 그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외골문화회관은 1층 카페 ‘섬표’의 운영으로 나온 수익금으로 공간을 관리한다.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교육도 진행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Interview

“되돌아보니 마을이 저를 키웠더라고요”  
조하늘 청년활동가



**외골문화회관은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2013년에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공원에 자주 왔는데 어느 날 보니 외골문화회관이 생겼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 주변을 배회하다가 친구 따라 카페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곳에서 하는 바리스타 수업을 듣고 카페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점점 선생님들과 친해졌습니다.

**개꿈프로젝트 스테프로 참여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프로젝트였나요?**

‘개(開)꿈프로젝트’는 청천동과 산곡동 지역의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꿈을 여는 토크 콘서트였습니다. 사실 모든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꿈프로젝트에서는 꿈이 없어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성공한 어른들이 아니라 또래 친구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2015년 8월에 처음 열렸는데, 그때 저와 제 친구들이 직접 무대도 만들고, 음료도 만들면서 어른들과 함께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저희도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외골문화회관에서 활동하면서 무엇을 느꼈나요?**

외골문화회관 선생님들과 같이 청소년데이, 개꿈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내게도 뭔가 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음악’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요. 작년엔 싱글 앨범도 냈거든요. 지금 돌아해보면 마을이 저를 키운 거더라고요.

현재 이들은 새로운 주민들과 동네 분위기에 맞춰 전환마을, 자원순환, 루프탑 활용 문화공간 조성 등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외골문화회관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 지역공동체 활동을 이끌어온 주도적인 주민들이 있고, 지역의 크고 작은 공동체들이 상호 연결되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왔던 20년의 끈끈한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CASE 9

# 성수나눔공유센터

지역 상생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다

## Specification

- **위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5길 5-1
- **규모** | 지하 1층, 지상 6층(연면적 897㎡)
- **사업기간** | 2018~2020년(2020.4. 개관)
- **총사업비** | 53억 4,700만원(시비 36억 3,000만원\*, 구비 4억 1,700만원, 특별교부금 13억)  
\*서울형 도시재생시범사업
- **운영비** | 총 2억 8,500만원(시비, 2021~2023년)
- **시설소유** | 성동구
- **운영주체** | 성수지영협동조합
- **연락처** | 070-4156-7500



키워드  
**사회적경제 활성화, 주민거점공간, 주민자율운영**



공간기획단 워크숍

**10**회



사업설명회  
**100**회 이상(320여 명 참여)



협동조합 창립멤버  
**12**명(정조합원 49명, 예비조합원 77명)

상용근로자  
**4**명



(왼쪽부터) 박영훈 성수지영협동조합 상임이사, 윤연주 성수 도시재생주민협의체 위원장, 조웅제 주무관, 안상규 주무관, 이석형 코디네이터.

## 성수동의 다양한 세대를 위한

### 커뮤니티 공간 & 지역경제 활력의 거점

화색빛 공장이 가득했던 성수동은 이제 서울에서 가장 힙한 동네로 변모했다. 아름다운 서울숲을 중심으로, 폐공장은 개성 넘치는 예술 작업실로 재탄생했고, 거리마다 카페와 공방, 디자인숍이 사람들을 반긴다.

이러한 서울숲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성수나눔공유센터가 있다. 7층의 붉은 벽돌 건물은 얼핏 보면 성수동에서 많이 보는 소셜벤처들의 코워킹 공간 같다. 그만큼 세련된 외관을 지녔지만 이 건물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이다. 성수1가2동 공공 복합청사 옆 30년도 더 된 노인복지시설을 리모델링하여 만든 이곳은 마을카페, 블룩방, 공유주방, 파티룸, 노인복지시설 공간을 갖춘 아이부터 어른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커뮤니티 공간’이자 지역의 소상공인, 기업들과 연계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상호 홍보를 통해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도시재생의 거점 공간이다.

유리문으로 누구나 쉽게 들어설 수 있는 1층 카운터를 통해 연결되는 2층은 마을카페다. 단체석, 일반석, 1인석 등 다양한 좌석과 커피와 차 같은 음료부터 케이크, 초콜릿까지 다양한 메뉴를 갖춘 이곳은 주민들의 이용이 가장 많은 곳이다. 선명한 초록색이 기분마저 좋아지게 만드는 3층의 ‘블룩방’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다. 연령과 성별에 따라 고를 수 있는 약 200여 가지 레고가 있어 시간당 대여비를 내고 부모와 함께 이곳에서 놀아도 되고, 또 집으로 레고블럭을 가져가 놀 수도 있다. 4층에는 지역의 청년, 주민들이 빌려 쓸 수 있는 파티룸과 공유주방이 있다. 파티룸은 워크숍이나 회의, 작은 파티 등 소모임이 가능한 대관 공간이다. 카페에서 판

주민참여 선도사례

매하는 초콜릿과 케이크 등을 만드는 주방도 있다. 5~6층은 지역 어르신들의 쉼터, 구립 서울숲 경로당이다.

“이 지역이 핫플레이스가 되면서 노키즈존처럼 아이들이 못 오는 공간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곳에 오시면 3층에 아이를 두고 부모들은 2층이나 4층에서 모임을 갖죠. 거의 매일 오시는 노부부도 계시고요. 이처럼 공유나눔 센터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주민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박영훈 성수지영협동조합 상임이사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성수나눔공유센터는 성수동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다. 주민들이 직접 운영도 한다. 이곳의 운영주체는 성수도시재생사업에 참여했던 주민들을 중심으로 2018년 5월 설립한 CRC(도시재생기업) ‘성수지영협동조합’이다. 프랑스 파리의 파리지역에 영감을 받아 지었다는 성수지영이라는 이름만 봐도 성수동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엿볼 수 있다.

## 주민참여단, 주민협의체, 공간기획단으로 이어진 주민참여

성수동은 면적의 약 80%가 준공업 지역이다. 60년대 이후 봉제와 수제화, 금속 등 대한민국의 다양한 산업경제를 이끌어온 공장들이 세워졌고, 특히 수제화는 성수동을 대표하는 토착산업으로 명성을 누리기도 했다. 그러나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인해 공장들이 문을 닫게 되면서 지역은 쇠퇴하기 시작했다. 또 2004년 서울숲이 생기면서 강남과 가깝다는 이점을 보고 IT 관련 기업들이 이전하면서 임대료가 상승하는 등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복합적인 지역문제를 해결하고자 성동구는 2014년 서울형 도시재생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2020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우수사례 도시재생 분야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한 성수동이지만, ‘도시재생’이란 말 자체가 생소한 초기 주민들의 반응은 차가울 수밖에 없었다. 성동구는 이런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성수 도시재생지원 센터를 개소하고, 2015년 4월부터 약 1년간 ‘찾아가는 도시재생설명회’를 100회 가까이 진행하며 주민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가졌다.

“도시재생사업의 근간은 공동체의식입니다. 지역의 고유한





주민 초콜라티에가 만드는 수제 초콜릿 상품.

문화와 특성은 보존하면서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사업을 하려면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함께 만든다는 의식이 꼭 필요하니까요. 설혹 앵커시설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진정한 주민의 식을 갖고 운영할 수 있는 주민들이 없다면 사업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가 낮았기 때문에 구청에서 먼저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사업의 취지를 알렸지요.”(안상규 주무관)

2015년 4월부터 약 1년 동안 주민설문조사, 찾아가는 설명회, 주민워크숍, 도시재생아카데미 등이 진행되며 주민들 사이에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과 가치가 공유되기 시작했다. 특히 10회나 진행된 도시재생 아카데미는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

총 3차례의 워크숍과 마을탐방을 통해 주민참여단 활동이 시작되었고, 주민 스스로 도시재생의 의미를 찾아가면서 주민들의 능동성이 발휘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16년 4월, 성수 도시재생 주민협의체가 공식 발족했다. 약 300여 명이 참여한 주민협의체는 4개 분과(주민분과, 사회적경제분과, 문화예술분과, 소상공인분과)를 두고 주민들의 의견을 풍성하게 수렴하고, 세부사업에도 참여하며 행정과 지역 주민 사이에 든든한 다리 역할을 했다. 특히 성수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3개 분과 주민들과 주민자치위원회가 연합하여 기획한 2017년 제1회 성수도시재생 축제 ‘꽃길만 걸어요’의 성공적인 개최는 7,000명이나 되는 이들이 방문하는 등 폭발적인 관심 속에 지역에 공감대를 만드는 큰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2017년 1월부터 9개월 동안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의 앵커시설 건립을 두고 논의를 펼쳤고 그 결과 나눔공유센터 건립계획을 내놓았다. 동시에 주민들의

역량강화 움직임도 시작됐다. 시설을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자 2017년 5월 ‘성수 도시재생 공간기획단’을 만들고 2년 6개월 동안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했다. 주민들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협동조합 사업비를 지원 받았으며, 창신승인 마을카페를 탐방하고 선진 사례지인 일본을 사비를 들여 방문하는 등 총 50회가 넘는 교육을 지속했다. ‘마을카페’를 주요 사업으로 생각한 ‘공간기획단’은 1~3기 마을 바리스타 양성과정을 기획했고, 커피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에 사비를 들여가며 제과제빵, 소콜라티에 전문교육을 받고 자격증도 취득했다. 그렇게 하여 현재 성수지영협동조합의 핵심 상품인 초콜릿 상품이 개발될 수 있었다. 이러한 열성적인 공간기획단 활동은 2018년 5월 CRC기업 성수지영협동조합 설립의 밑바탕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윤연주 성수 도시재생



아이들이 놀 수 있는 3층 블록방.

주민협의체 위원장은 “울기도 많이 울었죠”라고 했다.

“도시재생 아카데미가 열렸을 때는 저를 포함해 70명의 주민들이 함께 했는데 그중 저 혼자 남았어요. 자립을 목표로 하는 CRC를 해야 하는데, 저도 그렇고 주부들이 다수다 보니 사업을 잘 이해하기도 어려웠고요. 그 와중에 도시재생 예산이 100억이라니 뭘 모르는 사람들의 뒷말도 정말 많았죠. 지역에 보탬이 되겠다는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없었다면 못 버텼을 거예요.”

성수지영협동조합의 창립 멤버는 12명이었다. 참여의사를 밝혔던 28명 주민들 중 반 이상이 출자금과 사업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돌아섰다. 겨우 창립했으나 중간에 회원이 4명으로 감소하는 위기도 겪어야 했다. 그러나 2021년 6월 현재는 조합원 49명, 예비 조합원 77명의 탄탄한 협동조합으로 성장했다. 2018년 부지매입이 완료됨에 따라 나눔공유센터를 짓기 위한 설계공모가 시작되었다. 주민이 사용하고

## Interview

“행정은 주민참여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기름 붓는 역할을 해야죠”

안상규 주무관



성수지영협동조합의 지속가능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행정에서 어떤 지원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수동에 지식산업센터가 있다 보니 중견기업, 브랜드 기업이 많이 이전해오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이들 기업과 업무협약을 맺고 또 성수지영협동조합과는 지원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해서 정보를 계속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이 기부활동이나 주민 대상 행사를 할 때 일차적으로 지역에 기반한 CRC기업과 콜라보를 할 수 있게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죠. 기업의 입장에서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수익의 일부를 지역으로 돌리는 CRC는 매력적인 협업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요. 이런 협업을 통해 선순환이 지역 전체로 퍼져나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성수지영협동조합의 성공 관련,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CRC와 같은 도시재생기업에 대한 지원은 보통 3년이면 끝납니다. 너무 빠듯하단 생각입니다. 흔히 인큐베이팅을 이야기하는데 아이가 태어나 초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13년이잖습니까. 이 시간에 비한다면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너무 빠듯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도시재생사업이 4년이라는 사업기간을 갖는데, 이 4년 전과 4년 후의 변천사를 조사하여 CRC기업이나 주민활동가들이 활용할 수 있게 전국적 차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을 정부에서 지원해준다면, CRC(도시재생기업)가 더 잘 정착하고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운영할 공간인 만큼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했기에 주민협의체는 주민설명회 등 공간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하였다. 성동구청 역시 주민 의견을 잘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심의 과정에 주민협의체 위원장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 그 결과 설계도면의 수정도 이뤄졌다.

“원래 설계는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1층을 벽이 없는 공간으로 두고 위는 전부 사무실이었죠. 근데 주민들이 1, 2층을 카페든 뭐든 영업을 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넣어달라는 의견을 냈어요. 그 결과 지금처럼 공간 활용도가 높아



질 수 있었죠.”(윤연주 주민협의체 회장)

### 공동체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과 상생을 꿈꾸다

2020년 1월 드디어 성수나눔공유센터가 준공되었고, 4월 정식 개관을 선포했다. 개관 이후 그해 12월까지 공간의 시범운동을 맡았던 성수지영협동조합은 2020년 12월,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공모에 참여하여 당당하게 선정되었다. 성수지영협동조합은 서울시와 협약을 맺고 2021년부터 3년간 사업비와 인건비로 총 2억 8,500만원의 지원을 받으며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 1월 드디어 성수나눔공유센터가 준공되었고, 4월 정식 개관을 선포했다. 개관 이후 그해 12월까지 공간의 시범운영 기관으로 선정되어 시범운영기간동안 다양한 성과를 만들어서 2021년부터 3년간 나눔공유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정식 운영계약을 맺게 되었다. 또한 성수지영협동조합



1층 카페 공간은 성수나눔공유센터의 주된 수익원이다.

은 2020년 12월,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공모에 참여하여 당당하게 서울시 CRC(도시재생기업)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성수지영협동조합은 서울시와 협약을 맺고 2021년부터 3년간 사업비와 인건비로 총 2억 8,500만원의 지원을 받으며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성수동의 느낌을 살린 2층 카페의 모습.



지역사회 소기업으로부터 소액을 지원받아 컵홀더에 로고를 인쇄하여 홍보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CRC기업이 운영하는 성수나눔공유센터는 자립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현재 이곳에서는 운영진인 7명의 조합원을 제외하고 직원 4명과 활동가 3인이 일하고 있다. 특히 ‘활동가’ 주민들은 성수지영협동조합의 바리스타교육, 도시재생 아카데미 등을 이수한 주민들로 ‘1일 사장제’라는 이름으로 자발적으로 하루씩 근무를 하며 부족한 일손을 보태고 있다.

무상 사용 및 자율 운영을 목표로 하는 이곳은 성동구청과 협의를 통해 수익활동도 하고 있다. 카페 운영, 시설 대관을 통해 약 1,400만 원의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그 중 80% 이상이 카페 매출이다.

“저희의 목표는 사업을 통해 매출을 내면 수익의 일부를 지역 발전을 위한 마을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코로나19로 예상했던 만큼의 매출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내 소상공인, 기업과 MOU를 맺고 콜라보 활동을 통해 다른 방식으로 지역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박명훈 상임이사)

대표적인 것이 성수나눔공유센터 앞 플리마켓이다. 성수지영협동조합은 성동구청의 협조를 받아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 공방, 소기업 중 플리마켓 셀러로 활동하고 싶어 하는 이들을 모집해 센터 앞 부지에서 2020년 총 4차례의 플리마켓을 열었다. 서울숲, 먹자골목, 카페거리가 지척이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은 여건을 살린 상생전략

을 편 셈이다. 센터를 개관하고 나서 구청에서 운영하는 공간에서 왜 커피를 파느냐고 안 좋은 시선으로 보던 인근 카페들도 이런 모습을 보며 호의적으로 돌아섰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성수동 내 또 다른 도시재생공간인 산업혁신공간과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일에도 나서고 있다. 과학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콘텐츠 회사와 접촉하여 관련 콘텐츠를 산업혁신공간에 전시·홍보할 수 있도록 성수지영협동조합이 연결한 것. 그 외에 특별한 ‘컵홀더’ 콜라보도 눈길을 끈다. 카페의 컵홀더에 성수지역의 작은 브랜드나 기업의 로고를 인쇄하여 홍보를 대신하고, 대신 기업으로부터 소소한 제작비를 지원받아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

“반대로 지역의 기업이 저희에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지역의 꽤 큰 회사에서 저희 회사의 취지를 아시고, 직원용 발렌타인데이 선물로 초콜릿제품을 200세트 구매하기도 했거든요.”(박명훈 상임이사)

이러한 흐름을 활성화하는 역할은 성동구청이 맡고 있다. 성동구청은 성수지영협동조합이 매개자가 되어 주민, 청년, 기업이 함께 있는 성수동의 시너지를 높이도록 가고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에 들어서는 기업들 중 기부나 후원의 의지가 있는 곳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성수지영협동조합과 정보를 공유하여 기업과 성수지영협동조합의 협업을 통해 지역에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주민참여단, 주민협의체, 공간기획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도시재생의 가치를 증명하고, 자립경제의 토대를 쌓은 성수지영협동조합. 끊임 없는 자체 상품개발과 판로 개척, 홍보를 통해 성수동의 마을기업으로서 성장과 자립을 꿈꾸는 이들은 동시에 지역 내 소상공인, 공방, 기업들과 함께 꾸준히 홍보하고 콜라보하는 기회를 만드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그것이야말로 성수동이 상생하는 길이고 성수지영협동조합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길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힘들긴 하지만, 잘 버텨내야죠. 개관하고 지금까지 저희 주방은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매일매일 신제품을 개발하느라 열심입니다. 성수 나눔공유공간을 만들기까지 저희를 믿어준 성동구청과 주민들 그리고 스스로를 믿고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라는 윤연주 주민협의체 위원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 위스테인별내 커뮤니티센터

돌봄과 교육의 마을공동체를 품은 커뮤니티센터

## Specification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3로 27
- **규모** | 대지 30,631.00㎡, 건물연면적 71,568.55㎡  
(공동주택 48,308.37㎡, 근린생활시설 외 부대복리시설 22,872.23㎡, 근린생활시설 387.95㎡)
- **주요시설** | 동네책방, 동네카페, 동네체육관, 창작소, 국공립 어린이집
- **사업기간** | 2017.11.14~2020.1.13(2020.5.27. 준공)
- **총사업비** | 781억원(아파트 전세)
- **운영비** | 연간 2억 9,460만원((491세대\*월 5만원)\*12개월)
- **시설소유** | (주)대한제10호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지분소유: LH 70%, 협동조합 30%)
- **운영주체** | 위스테인별내사회적협동조합, 스페이스잇다
- **연락처** | 070-7791-8702



키워드  
**아파트형 마을공동체, 협동조합, 주민일자리창출**



커뮤니티 시설  
**13**개



자생 동아리 수  
**28**개

활동회원수  
**433**명



커뮤니티 공간별 소위원회  
**12**개

입주민 일자리 창출  
**48**명



(왼쪽부터) 이하은 학생, 김동신 위스테인별내 동네지기, 손병기 위스테인별내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이범수 위스테인별내 커뮤니티 센터장

삶의 근거리에 위치한 생활SOC를 넘어 내가 사는 곳에 생활 SOC가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달라질까. 이 질문의 대답을 남양주시 별내에 위치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위스테인별내가 답한다. 동네카페와 도서관, 동네체육관, 동네빨래터, 동네키움방과 동네자람터, 동네창작소와 목공소, 동네방송국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위스테인별내. 입주민이 설계에 참여해 만든 커뮤니티 시설은 주민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고,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구심점이 되고 있다.

## '사는(buying) 것'이 아닌 '사는(living) 공간'을 만든다

위스테인별내는 2016년 12월 국토교통부 시범사업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공공이 기금을 출연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방식은 다른 민간임대주택과 동일하지만 개인 단위로 입주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를 운영 관리하기 위해 만든 협동조합의 조합원만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사회혁신기업 '더함'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의 시범사업 공모에 낙찰되면서 시공사(건설사), AMC(자산관리회사), 건축설계회사와 함께 임대 리츠를 구성해 아파트의 기획에서부터 관리, 운영 등 사업 전반을 진행했다. 더함을 중심으로 협동조합도 조직되었다. 사회적경제조직 및 비영리기관 경험자를 대상으로 1차 조합원 123세대(총 조합원의 25%)를 모집, 2017년 5월 위스테인별내사회적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 이후 2018년 2차 조합원을 모집하며, 총 491세대 모집을 완료했다.

1차 조합원을 중심으로 아파트 내 커뮤니티 공간을 기획하고 설계했는데 면적만 2,777㎡로 법정 기준의 약 2.5배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

"초기 이사 7명은 매주 아침마다 3~4시간씩 회의를 했어요. 나중에 세어보니 1년에 36번을 모였더라고요. 카페 위원회, 도서관 위원회, 체육관 위원회 등 조합원들이 커뮤니티 공간의 위원회에 참여해 함께 공간을 설계했습니다. 9개월 동안 조합원들의 모임이 46차례 열렸습니다."(손병기, 위스테인별내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직접 이용할 주민들이 46번이나 모여 만든 만큼, 어느 시설 하나 허투루 지어진 곳이 없다. 필요에 맞게 내부기기들이 마련되었으며 인테리어 수준도 높다. 조합원 중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섰기 때문에 가능했다.

"예를 들어 동네체육관의 경우 조합원 중에 실제로 헬스장을 운영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을 중심으로 체육관 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체육관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생색내기용이 아닌, 기존의 헬스장과 견주어도 부족한 부분이 없는 체육관이 만들어졌죠."(김동신, 위스테인별내 동네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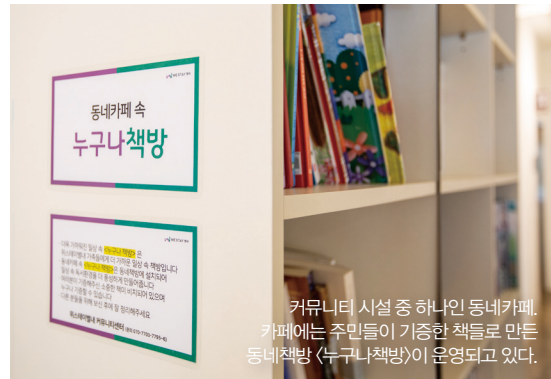
## 입주민의 의견으로 채워진 다양한 종류의 커뮤니티 시설

동네체육관은 헬스기구들이 있는 공간과, GX룸, 클라이밍과 탁구, 농구 등의 활동이 가능한 실내체육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린이를 위한 공간으로는 산새꽃어린이집과 3세 이하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동네키움방,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동네자람터 등 돌봄공간만 3곳이나 있다. 동네키움방과 동네자람터는 동네카페에 있어서 아이들은 돌봄 공간에서 놀고, 엄마와 아빠는 동네카페에서 모임에 참여하거나 개인시간을 보낼 수 있다. 외부 빨래방보다 40% 가량 저렴한 '동네빨래터', 개인 방송이나 음악 연습을 할 수 있는 '동네방송국'과 당구대, 다트, 플레이스테이션, 보드게임 등이 마련된 '동네창작소', 취미로 목수일을 배울 수 있고 3D프린터까지 활용할 수 있는 '동네목공소', 아직 코로나 때문에 개시하지 못했지만 100인분의 조·석식 조리가 가능하며 유난히 막걸리를 좋아하는 주민들을 위해 발효실도 갖춘 '공동주방', 아이들을 위한 공간(1층)과 어른들을 위한 공간(2층)으로 나누어 만들어진 '동네책방'도 모두 그렇게 만들어졌다. 동네책방은 보유 책만 7,000여 권, 연간 이용자 4,000여 명으로 아파트 시설이라고 하기엔 그 규모가 상당하다.



“초기에는 3,000권 정도였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책을 계속 구입하면서 1년 만에 두 배 늘어난 장서량을 자랑하는 도서관이 되었습니다. 아파트에 있는 도서관이지만 웬만한 도서관에 비해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범수, 위스테이별내 커뮤니티 센터장)

커뮤니티 공간만이 아니다. 아파트 곳곳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만들어졌다. 설계 당시에 고무칩 놀이터로 정해졌지만, 입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모래 놀이터로 바꾼 사례가 대표적이다. 관리가 어렵고 유실이 잘되는 모래 대신에 고무칩 놀이터도 좋다고 생각했지만, 모래가 아이들의 창의성 발달에 더 좋다는 조합원 의견을 받아들여 모래 놀이터로 변경했다. “일반 아파트는 아파트 건설사가 짓는 대로 와서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또 입주하는 날 처음 입주민을 만나죠. 내



삶을 이미 만들어진 아파트에 맞춰야 하고, 공동공간을 함께 이용하는 이웃들과 관계를 형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파트는 입주하기 3년 전부터 만나 우리의 공간을



7000여권, 2층 규모로 여타 아파트 도서관에 비해 큰 규모를 자랑하는 위스테이별내 동네책방.



어떻게 꾸며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 공동체나 협동조합에 관해 공부하며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내가 참여해서 만든 공간이니 더욱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웃들과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술선수범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티센터가 더 활성화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손병기, 위스테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운영의 주체는 입주민 모두로 구성된 협동조합

일반적인 임대아파트는 임대자산 관리, 시설유지관리 주거 서비스 등을 각각 다른 회사에서 운영한다. 그러나 위스테이별내는 시행사인 사회적기업 더함의 자회사인 스페이스잇다에서 FM(시설유지관리), PM(임대자산관리), CM(커뮤니티센터관리) 등을 총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의 상당수가 위스테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이자 입주민으로 아파트 운영에 관하여 면밀히 소통하며 협조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총회,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운영소위, 돌봄소위, 공간소위, 백개의 학교소위, 커뮤니티비즈니스소위, 교육소위, IT소위, 갈등조정소위, 청소년소위, 홍보소위, 기후위기비상행동특위 등 11개 운영위원회 등 세 개의 층위로 운영되고 있으며, 원한다면 누구나 아파트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대부분의 입주민이 2~3개의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제가 위스테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이면서 아파트 임차인 대표인 것처럼요. 협동조합 집행위원회나 소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커뮤니티 시설의 운영에 참여하거나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역할들을 합니다.”(손병기 이사장)

#### Interview

“사는(buying)것이 아닌 함께 사는(living) 아파트를 만듭니다”  
손병기 위스테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위스테이별내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나요?

2016년 10월 국토교통부 시범사업으로 공모가 되어서 국내 최초의 협동조합형 뉴스테이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가 사고파는 투기의 경계에 있었다면 주거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만들어보자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정부와 사회적경제와 시민이 함께 협력하여 만든 아파트로 협동조합이 주체로 참여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이 시행을 하고 함께 운영하는 새로운 혁신 모델입니다.

#### 위스테이별내가 앞으로도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위스테이 별내는 2028년 의무 임대기간이 종료되고 분양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본 사업의 취지에 맞게 정부 지원금의 70% 지분을 협동조합이 일괄 인수해서 조합원들이 지분을 주식처럼 보유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로는 협동조합이 공익적인 방식으로 분양을 받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법 개정과 조례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련 법과 조례가 개정되어 일반 건설사가 분양을 통해 수익을 내는 출구 전략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대안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동체가 더욱 뿌리 깊게 자리잡을 수 있는 모범적 사례가 되고 싶습니다.

함께 사는 협동조합인 만큼 갈등이 없을 수는 없는 법. 갈등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주민들 간의 갈등을 조정한다. “160시간이나 되는 갈등조정전문가 과정을 이수한 조합원들이 갈등조정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층간소음 등 공동주택 내에 문제가 생기면 갈등조정위원회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모두를 위한 공동생활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담은 존중의 약속 선언문도 만들었습니다.”(김동신 동네지기)

커뮤니티 시설 역시 입주민들로 구성된 공간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다른 체육관이 운영되지 못할 때에도 동네체육관은 운영되었습니다.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간 지킴이로 활동하면서 방역을 준수하도





아파트 주민이라면 동네목공소에서 누구나 원하는 제품을 제작할 수 있다.

록 안내하고 소독 등 방역활동을 했습니다. 우리의 공간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김동신 동네지기)  
커뮤니티 시설에서는 입주민이 강사로 나서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는 ‘백개의 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육아, 취미, 취향, 사회적 활동 등 다양한 주제로 30여 개나 되는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다.

“입주하고 3개월 만에 23개의 강좌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46개의 동아리 신청이 있었고, 현재 28개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활동 회원수만 해도 433명이나 됩니다.”(손병기 이사장)

특정 연령층의 활동만이 활발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동아리들이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과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꿈의 학교’ 프로그램을 커뮤니티 시설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저희가 배우고 싶은 것들을 기획해서 배우는 건데, 아파트에 사는 또래 친구들도 만나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이하은 학생)  
“꿈의 학교를 중심으로 아이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면, 청소년위원회로 확장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른들 중심으로 커뮤니티 시설이 만들어졌지만 아이들이 이 안에서 다양한 경험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싶습니다.”(이범수 커뮤니티 센터장)

### 커뮤니티 시설의 입주민 동아리가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되다

이들 동아리는 동아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거, 돌봄, 교육, 먹거리, 일거리를 해결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로도 확장되고 있다. 30~40대 입주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아파트 어디를 가나 아이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데, 주민들은 돌봄공간을 중심으로 ‘품앗이 육아’를 했다. 품앗이 육아를 중심으로 엄마들 모임, 아빠들 모임 등 모임들이 파생되어 만들어졌다.

돌봄공간이 부족한 편이 아닌데도 이용을 원하는 주민이 점점 많아지자 주민들은 아예 별도의 협동조합을 새로 만들고 상가 하나를 빌려 ‘스스로 깨치는 아이들 다함께 돌봄센터’를 만들기도 했다. 위스데이별내뿐 아니라 주변 아파트를 포함해 맞벌이·다자녀 등 관심 있는 주민들이 출자했으며, 주민들이 지킴이를 자처해 돌봄센터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60+센터는 시니어 그룹으로 커뮤니티 시설의 청소를 봉사활동으로 담당했는데 남양주시 시니어 센터와 협력하여 60+행복협동조합을 만들고, 청소, 어르신 택배 등을 특화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중이다.

2020년 11월에는 건강한 먹거리에 관심 있는 입주민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만들고, 로컬푸드 전문상점 ‘협동상회’를 오픈했다. “인근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거의 없고, 입주민들의 주요 연령대가 아이들을 위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고민

주민 동아리는 돌봄센터, 시니어 비즈니스, 로컬푸드 전문상점, 분식점 운영과 양조장 사업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로 진화하고 있다

이 많은 연령대입니다. 이들 중심으로 협동조합이 만들어졌고 아파트 상가에 동네가게형 로컬푸드 매장을 오픈해 운영하고 있습니다.”(김동신 동네지기)  
협동상회 협동조합, 60+행복협동조합, 스깨야(스스로 깨치는 아이들)3로27 협동조합 외에도 아파트 상가에서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같이하다 협동조합, 양조장 협동조합이 별내공동체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져 사업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위스데이별내협동조합이 하나의 우산이 되고 우리 아파트 공간이 동지가 되어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동네체육관은 기존의 헬스장과 견주어도 손색없다.



입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로컬푸드 전문상점 협동상회.



아파트 사랑방, 동네카페. 입주민 바리스타가 만든 맛있는 음료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입주민이 아파트를 함께 만들고 운영하면서 만들어진 일자리만 48개나 된다. “임대관리센터나 자산관리센터, 커뮤니티센터, 동네카페, 동네책방, 돌봄센터, 생협, 커뮤니티 청소, 어르신 택배 등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진 일자리가 48개나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과 삶이 구분되지 않는, 자생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 저희의 큰 바람이기도 하고요.”(손병기 이사장)

대형 건설사의 투자 차원을 넘어 시민들이 부동산이라는 큰 규모의 자산을 함께 공유하고 운영하는 위스데이별내. 이들 공동체의 구심점에는 내 삶에 녹아든, 이용객 스스로 만들고 운영하는 생활SOC 시설이 있다.

“예전에는 현관문을 지나야 내 집에 왔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아파트 입구에만 들어서도 우리집에 왔다는 기분이 든다고 다들 말합니다. 부동산을 꼭 소유해야 할까요? 소유하지 않아도 함께 누리고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가능성이 실현되는 아파트를 만들고 싶습니다.”(김동신 동네지기)



## CASE 11

## 수수헌

## 마을운영단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주민자치공간

## Specification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봉로12가길 56-4
- 규모 | 지상 2층(연면적 261.34㎡)
- 사업기간 | 2017.7.~2018.8.(2018.9. 개관)
- 총사업비 | 17억 2,500만원(국비 11억 5,800만원\*, 시비 5억 6,700만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선도사업
- 운영비 | 연간 평균 1,000만원(자체조달)
- 시설소유 | 서울특별시
- 운영주체 | 창신송인 도시재생 협동조합 및 수수헌 마을운영단
- 연락처 | 02-742-6115



키워드  
마을운영단, 주민자치공간, 주민강사



설계안 주민설문조사  
300명



마을운영단  
5명



일자리 창출  
10명(21.9.현재)



## 뉴타운 지역에서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서울 곳곳에서 뉴타운 사업이 한창이던 2007년, 서울시 종로구 창신·송인 지역이 3차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됐다. 2002년부터 시작된 뉴타운 사업은 민간주도의 개발이 주택 중심으로만 추진돼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시행했던 새로운 기성시까지 재개발 방식이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원주민이 재정착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뉴타운 재개발을 둘러싼 잡음이 불거졌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이곳 창신·송인 지역이었다.

동대문 의류도매시장의 배후 생산기지로 1,000여 곳 이상의 봉제공장이 가내수공업 형태로 밀집한 이 낡은 동네를 모두 철거하고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자는 뉴타운 계획은 수십 년 동안 터를 잡고 살아온 주민들의 환영을 받지 못했다. 세입자가 전체 주민의 80%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재개발이 진행되면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고 타지로 밀려나야 할 게 뻔했다. 이런 사정은 창신·송인 봉제거리를 만든 봉제인들도 마찬가지였다. 대부분 다세대·다가구주택을 개조한 가내수공업 형태의 영세 하청공장들로, 이들 역시 재개발이 진행되면 이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뉴타운추진위원회와 이를 반대하는 주민비상대책위원회의 갈등은 갈수록 깊어졌고 주민들이 주도한 실태조사 결과,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반대하면서 창신·송인 지역은 2013년 10월, 뉴타운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주민들은 새로운 방식의 지역 정비에 나섰고 국토교통부가 2014년 처음 공모한 도시재생선도사업에 지원. 그해 5월 첫 도시재생 선도지역 13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

도시재생선도사업에 선정되면서 창신 1, 2, 3동과 송인1동은 변화했다. 우선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개선됐다. 울퉁불퉁했던 골목길과 도로는 걷기 편한 길로 바뀌었고, CCTV와 비상벨 등 범죄예방환경 설계시설, 제설함과 소화기함 등 재난 대비 안전시설들이 구축되었다. 자투리 공간을 쉼터나 화단을 만드는 소규모 쉼터 조성사업도 진행되었다. 또한 비디오아티스트 백남준이 유년 시절을 보냈던 곳이기에 ‘백남준 기념관’이 지어졌고 일제강점기 채석장이었던 창신동 절개지 주변에 ‘채석장 전망대’도 만들어졌다. 도시재생의 앵커 시설 역할을 해줄 주민공동이용시설이 동마다 조성되었다. 특히 송인1동에 문 연 ‘빠어난 손들의 집’이란 뜻을 가진 수



수수헌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은 주민이 직접 기획, 운영한다.

수헌(秀手軒)은 주민과 행정이 함께 만들고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 주민 모임에서 공간기획단을 거쳐 마을운영단으로, 수수헌을 만들고 운영하는 주체

“도시재생 선도사업이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주민공동이용 시설을 기획했습니다. 뉴타운 사업 당시의 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봉합하고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어요. 동별로 주민들이 모일 수 있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마을공동체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공간을 동별로 기획했습니다.”(손경주, 창신송인 도시재생협동조합 상임이사)

가장 먼저 지역주민을 모았다. “주민의 공간이기 때문에 공간을 만드는 데 주민들의 참여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공간기획단으로 참여해 현재 수수헌 마을운영단으로 활동 중인 김유정 씨 역시 “주민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공간이 생기는데 이 공간을 함께 기획하고 운영할 사람들을 모집한다는 현수막을 보고 공간기획단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한다.

도시재생사업 계획수립 과정에서 구성되어 사업추진 전 과정에 참여한 주민협의체 일부와 새로 합류한 주민 10여 명이 ‘공간기획단’이란 이름으로 모였다. 이들은 매주 모여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논의했다.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주민을 대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에 300여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공간기획단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서울시 공공건축가와 함께 공간을 완성해나갔다. “인근에 학교가 있는데 학부모와 아이들이 갈 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학부모와 아이들이 편하게 모일 수 있는 공간, 지역의 어르신들이 모여서 쉴 수 있는 공간 등 다양한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욕구가 컸고요. 또 창신·송인동이 봉제업의 산실인 만큼 봉제업과 연관된 공동 공간, 즉 공동 작업장 또는 봉제교육실 등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았어요.”(김유정 마을운영단)

공간이 만들어지기 전, 공간기획단은 다양한 예비사업도 진행했다. 공모사업을 통해 인근 봉제공장에서 직접 바지와 가방을 만드는 체험프로그램과 학부모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숲 체험, 지역 청년이나 주부들과 함께 청만들기, 요가 배우기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을 넓혔다.

### 주민자치를 실천하는 공간

1년 남짓의 공사기간을 거쳐 수수헌은 2018년 9월 개관했다. 지상 2층 규모로 1층은 마을사무실과 공동주방, 2층은 프로그램실과 음악연습실로 활용되며, 옥상은 현재 마을텃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대부분이 비탈길인 송인1동이지만 수수헌이 있는 곳은 평지다. 지하철역과 근접해 있어 찾아가기도 편하다. 수수헌이 만들어질 당시 서울시 담당 주무관이었던 소석영 팀장은 “주민 공유공간이 만들어질 때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주민이 모일 수 있는 위치”라며 “마침 큰길과 가까운 곳에 있는 오래된 빈집 두 채를 찾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도시재생사업인 만큼 빈집을 리모델링하려 했으나 안전상의 문제가 있었고, 비용 대비 효과성 측면을 고려해서 신축건물을 세우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렇게 국비 11억 5,800만원, 시비 5억 6,700만원 총 사업비 17억 7,250만원을 들여 수수헌이 완공됐고, 이 공간의 운영은 창신송인 도시재생 협동조합 산하 수수헌 마을운영단이 맡고 있다.

창신송인 도시재생 협동조합은 전국 1호 ‘지역재생기업 (Community Regeneration Corporation, CRC)’으로 지난 2017년 5월 설립되었다. 창신송인 도시재생 협동조합은 창신1동 백남준 기념관 카페, 창신2동 회오리마당, 송인1동 수수헌, 채석장 전망대와 카페 등 창신 1,2,3동과 송인1동의 주민 공동이용 시설을 모두 운영하고 있으며, 창신송인 도시재생 해설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초기 공간기획단에서 발전한 마을운영단(총 5명)은 수수헌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것은 물론 대관 등 수수헌의 실질적인 운영을 전담한다. 이들이 수수헌의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기획한 ‘재생아 재생아 뭐하니 밥먹는다’는 마을 주민이 강사로 참여해 요리, 감성코칭, 트레이닝, 여행 등 다양한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함께 요리를 해 먹는 프로그램이다. 23회가 진행되며, 수수헌이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었다.



2층 프로그램실. 다양한 주민 모임이 진행되며, 공동작업실, 합주실 등의 시설이 함께 마련되어 있다.



마을운영단의 김유정 씨와 손경주 CRC상임이사.

“외부강사에 기댈 수도 있지만, 주민들이 운영하는 공간인 만큼 주민이 강사로 나설 수 있는 프로그램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곳은 공간이기도 하지만 주민들의 플랫폼이기도 하니까요.”(김유정 마을운영단)

이후 마을 주민이 강사로 진행하는 동양화 수업, 영어 수업,

캘리그라피 강좌, 기타 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독서 모임, 미술 모임이 만들어졌다. 특히 2019년에는 서울문화재단의 생활문화지원센터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공간을 운영하면서 아쉬웠던 점들을 보완할 수 있었다. “1층에 공유주방을 만들었지만 사실 이름만 공유주방이고 집기를 구매할 비용이 없었어요. 또 2층도 공간 구분이 없이 뒀던 공간이었어요. 서울문화재단의 생활문화지원센터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2층 공간을 방음실과 프로그램실로 분리하는 공사를 했고 공간 운영에 필요한 집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손경주 CRC상임이사)

또 마을합창단, 주민낭독극, 자유창작놀이터(창작활동을 기반으로 주민들과 어울리는 프로그램), 신세계벤처강좌(새롭게 배우고 싶은 것을 해보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었다.

현재는 종로구 동네 배움터 사업을 통해 영화동화 읽기 모임, 웹툰 제작 수업, 재봉틀을 이용한 소품 제작 프로그램, 가발 수선기술 배우기, 가죽 파우치 만들기 수업, 동양화 수업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자체 사업으로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을공부방 등을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다면, 하반기에는 외부 마당과 2층 발코니, 옥상들을 활용해 음악회와 낭독극, 전시회가 펼쳐지는 ‘동네 예술 아지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마을운영단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운영되지만 주민이 먼저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수수헌에 제안하여 해볼 수도 있다. 그렇게 수수헌은 주민들에게 악기나 연극 연습실, 놀이터, 공부방 등으로 대관되어 다양하게 쓰인다.

“공유주방을 빌려서 아이들 생일잔치나 계모임을 열기도 하고요. 해금 동아리 같은 주민 동아리와 인근 대학교 연극팀의 연습실로도 이용돼요. 키움센터 아이들의 음악수업이 열리기도 하고요. 다양한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김유정)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공간이자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공간이면서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채워나가는 공간이에요. 누군가가 만들어낸 프로그램이나 방식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수수헌은 자치를 실현하는 공간이 아닐까요?”(손경주 CRC 상임이사)

주민 스스로 필요를 채워나가는 공간, 수수헌. 이곳은 단순히 주민 이용 시설을 넘어 자치를 실현하는 공간이다.

합주실 모습.



## CASE 12

## 연암서당골 문화센터

지역의 다양한 자원으로 완성되는 생활SOC

## Specification

- 위치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공원로 89
- 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370㎡)
- 사업기간 | 2015~2020년(2021.1. 개관)
- 총사업비 | 20억 800만원(국비 7억 400만원\*, 시비 3억 5,200만원, 구비 9억 5,200만원)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 운영비 | 연간 약 1,900만원(구비)
- 시설소유 | 대구광역시 북구
- 운영주체 | 연암서당골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 연락처 | 053-665-4434



키워드

주민문화향유공간, 문화해설사, 지역경제활성화



주민협의체

40명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47명



일자리창출

20명(목공강사 7, 카페운영 2, 마을해설사 11)



산 절벽에 제비들이 앉아 쉬는 모습이 멀리서 보면 바위 같다고 하여 이름 붙은 연암산과 연암공원. 연암공원에서 산격동으로 이어지는 길 위에 연암서당골 문화센터가 있다. 2021년 1월 개관한 연암서당골 문화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1층 죽궁 공방, 2층 다목적 교육장, 3층 산격1동 작은도서관이 있으며 옥상정원으로 꾸민 옥상에서는 산격동 일대와 아름다운 신천, 연암산과 연암공원을 조망할 수 있다.

시설 소유는 대구광역시 북구이지만 연암서당골 문화센터의 실질적 운영과 관리는 주민협의체에서 연암서당골 협동조합을 거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한 연암서당골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맡아 하고 있다.

### 도시재생사업으로 낙후된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만드는 거점 공간

노인 인구가 주민의 22%를 차지하는 초고령 동네, 마을 안쪽 골목에서 10분 이상 좁고 경사진 길을 걸어 내려와 큰길로 나가야 버스를 탈 수 있고, 버스 노선도 10개 남짓으로 대중교통 접근성도 떨어져 오가기 어려운 동네, 지어진 지 20년 이상인 건축물이 1,436채로 마을의 90%가 노후 건축물이라 마을 전체가 낡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던 산격1동. 낙후된 동네라고 하지만, 과거만 해도 산격동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다. 1960년대 경북도청이 산격1동에 들어서고 인근에 3공단이 개발되면서 공단 사람들의 주거지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산격동은 연암공원이 있기 때문에 개발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산격동은 5개 저층 소규모 단지 아파트를 제외하면 대부분 단독주택이다. 공단이 쇠락하면서 청년을 비롯한 주민들이 외지로 떠났고, 경북도청마저 2014년 말 이전하면서 도시공동화 문제가 생겨났다. 이미 인구감소, 주거환경 낙후 등은 산격동의 오래된 문제였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과 행정이 힘을 모았다.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에 산격동 일대가 '연암서당골 여·행(餘·幸) 사업'에 선정되면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총 67억 8,200만 원의 사업비가 산격동에 투입되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주민을 모으는 일이었다. 달성 서씨의 집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마을카페

성춘인 만큼 산격동은 오랜 세월 이 지역에서 살아온 주민들이 많았다. 주민들은 마을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서 모였다. 처음으로 열린 서당골 반사회에 주민 50여 명이 참여했고, 이들을 중심으로 주민협의체를 만들었다.

“2015년 당시만 해도 도시재생과 관련해 참고할 만한 선진 사례가 많이 없었습니다. 주민들과 공동체를 다지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좋을지 구상을 했고, 첫 번째 사업이 이야기 찾기 사업이었습니다. 지명 유래나 마을에 관련한 추억을 모아 책을 만들었습니다.”(신창섭, 북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주민들이 모은 마을의 이야기는 단행본과 스토리북, 마을 이야기 지도 등으로 이어졌고, 마을 이야기관인 이역소 조성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마을해설사 양성사업을 통해 26명의 마을해설사도 양성했다.

주민과 상인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문패를 만드는 ‘가갸호호 이야기 있는 문패 만들기’ 역시 산격동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무엇보다 구암서원, 용담재, 연암공원 등 주변 문화자원을 연계해 벽화를 그린 연암 길 갤러리 사업, 연암마을 안길 꾸미기, 구암서원 진입로 가꾸기, 연암 인문마당 조성 등의 사업은 마을에 변화를 일으켰다.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전에는 길은 물론 노후화된 집이나 벽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마을이 달라지니까 방치되었던 집들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모델링하는 곳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런 변화를 마을에 사는 저희가 제일 먼저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서상우, 연암서당골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부이사장)

“이전에는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고령층의



어르신들이 보행 보조기를 사용해 보행하실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길가에는 차가 주차되어 있고, 인도와 도로가 구분되지 않은 길이라서 마주 오는 차가 있으면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거죠. 이제는 한쪽은 주차가 되어 있고, 한쪽은 인도블록이 깔려 있을 뿐 아니라 차가 다니는 길도 정비되어 있어 안전하게 길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신창섭 센터장)

바리스타 교육을 진행해 주민 바리스타가 운영하는 마을카페가 문을 열었고, 주민들을 중심으로 목공 동아리가 만들어졌으며 이들이 작업할 수 있는 마을목공소도 마련되었다.

“오래된 주택이 많아서 집수리를 할 일이 많습니다. 직접 수리도 하고 간단한 가구는 직접 만들어보고 싶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정말 많았습니다. 재능기부 해 줄 주민들도 있었고요. 목공 동아리를 만들고 교육을 진행했고 마을목공소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직접 주문제작하기도 하고, 다른 지역의 단체나 개인들을 지도하기도 합니다.”(서석량, 연암서당골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이사)

구암서원으로 가는 골목 중간에 연암인문마당이 조성되어 마을을 소개하는 벽화가 장식된 둥근 마당에서는 연암서당골 영화마당(12회)과 공연, 주민 모임이 이루어졌다. 영화마당 외에도 마을축제인 연암서당골 한마당(3회)과 연암서당골 골목장터(2회) 등을 열었다.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65회의 주민협의체 회의, 17회의 반사회, 1번의 성과공유회가 열렸다. 주민들은 전주, 부산, 수원, 안산, 순천, 영주 등 도시재생 선진지 견학(7회)을 비롯해 세미나와 워크숍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역량을 키워나갔고, 2018년 6월에는 연암서당골 협동조합도 창립했다.

### 관이 지원하고 주민이 만들어 지역과 협력하다

마을이 변화하고 활력을 찾아갔지만 사업을 진행하면 할수록, 주민들이 모여 만나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스스로 만들어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다. 지금은 중축해 2층에 번듯하게 운영되고 있는 마을카페 역시 당시만 해도 작은 컨테이너 건물이었기에 공간에 대한 아쉬움이 존재했던 것이다. 주민들의 공간조성에 대한 욕구와 함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고민도 시작됐다.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의 지원이 끝난다고 해서 연암서



마을목공소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당골의 도시재생이 끝나서는 안 되죠. 이곳은 대구광역시 문화재 자료 제2호로 지정된 구암서원 송현사를 포함하여 다양한 관광문화자원이 존재합니다. 인근의 관광문화자원과 연암서당골의 카페, 목공소, 이역소 등을 관광코스로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했고, 공동체 활동공간으로 복합문화공



연암서당골 문화센터 3층의 산격1동 작은도서관.

간 조성을 구에 제안했습니다.”(서석량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이사)

“구에서도 시설물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을 지어야겠다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공간을 만들지, 그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여 운영하면 좋을지 등등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류혜영, 대구광역시 북구청 재생관리팀장)

2019년 초 주민협의체 회의에서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논의하면서 명칭, 공간 구성 등을 결정했다. 문화센터가 들어설 부지를 알아본 것도 주민들이다. “연암공원에서 큰 도로로 이어지는 마을의 주도로에 있던 집을 내놨다고 듣고 바로 구에 알려줬습니다. 워낙 위치가 좋아서 사비로 계약금을 먼저 내겠다는 주민도 있었습니다.”(서석량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이사)

이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이들이 나서준 덕분에 연암서당골



(왼쪽부터) 김영선 행복북구문화재단 도서관 운영본부장, 김병연 죽궁공방 운영자, 서성우 연암서당골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부이사장, 서석량 연암서당골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이사.

문화센터의 위치는 절묘하다. 마을의 가장 큰 길에 위치해 있어 주민들이 오가기 편하고 마을카페와 마을목공소의 이동도 용이하다. 또 연암공원, 운동장과 근접하기 때문에 대구시민은 물론 여행객 등이 찾기 좋은 곳에 있다.

“3년 전, 연암공원에 물놀이가 가능한 놀이터 시설이 생겼습니다. 여름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가족들이 이곳을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아이들과 함께 갈 만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가족 단위 방문객부터 여행객, 대구시민 등 이들이 쉬어가기 좋은 곳에 연암서당골 문화센터가 있는 거죠.”(신창섭 센터장)

연암서당골 문화센터는 1층은 죽궁 공방, 2층에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주민모임 공간, 주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쉼터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실, 3층에는 산격1동 작은도서관이 있다.

우리나라 전통 활인 국궁의 명맥을 되살려 활을 제작하는 김병연 죽궁 공방장은 연암서당골 문화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자신의 공방을 이곳으로 이전했다.

“활 체험장이 연암공원에 있습니다. 대구시민들이 자주 찾는 곳이지요. 활을 쓰는 체험에서 그치지 않고 활의 역사를 배울 수도 있고 직접 활을 만들어볼 수 있는 공방이 가까이에

주민 마을해설사는 물론 목공교육과 제품을 주문제작하는 마을목공소, 식음료를 판매하는 마을카페 등 연암서당골 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있다



있다면 우리나라 전통 활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김병연, 죽궁 궁방장)

죽궁 궁방의 인테리어와 작업대, 궁 전시대 등은 주민들이 마을목공소에서 직접 제작했다.

산격1동 작은도서관은 기존에는 동 행정복지센터의 주민회의실과 함께 운영되었는데, 불편을 호소하는 이용객이 많았다. 문화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산격1동 작은도서관도 이곳으로 이전하여 운영되고 있다. 연암서당골의 역사와 관련한 서가와 활과 관련한 서가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연암서당골 협동조합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개발해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이나 모임이 가능한 것은 물론 공유주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2층 프로그램실, 북카페처럼 만든 3층 작은도서관, 산격동을 내려다볼 수 있게 만들어진 옥상정원 등 연암서당골 문화센터는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사소한 것에도 하나하나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

이 없습니다. 2층 프로그램실의 바형 테이블은 모두 수납이 가능한데요, 어머님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거죠. 옥상정원 역시 산격동은 높은 건물이 없어서 마을의 전경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전망을 내려다보며 편히 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졌습니다.”(류혜영 재생관리팀장)

**민과 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다양한 지역콘텐츠,  
연암서당골의 경쟁력을 만든다**

연암서당골 문화센터는 대구광역시 북구 소유지만, 연암서당골 협동조합에서 2020년 1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된 연암서당골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한다.

현재는 연암서당골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수익 창출이 안정화되는 시기까지 운영비의 일부(공공요금, 경사비)를 지원받지만, 대부분의 사업비는 연암서당골 마을관



우리나라 전통 활, 죽궁(사진 위)을 만들고  
체험도 가능한 죽궁 궁방이 1층에 위치해 있다.

**Interview**

**“주민의 의견을 듣고,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류혜영 대구광역시 북구청 도시재생과 재생관리팀장



죽궁 궁방을 연암서당골 문화센터로  
이전하자고 행정에서 제안했다고  
들었습니다.

“2020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연암  
전통민속놀이(체험장(죽궁장))이 만들어졌고  
대구시민은 물론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소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활 체험장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연암서당골 문화센터 내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었거든요. 죽궁 궁방이 생기면서 대구시민,  
관광객 등이 방문하여 활을 만들고 쏘는 체험을 하기도 하고,  
나전칠기, 단소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암서당골 문화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행정은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요?**

“올해부터 연암서당골 문화센터는 연암서당골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서 행정의 도움 없이 운영하게  
되었는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셔서 수익이  
안정화될 때까지 공공요금 등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일자리정책과와 협력하여 인력(청년 2명)  
지원, 사회적경제과와 연계하여 청년인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공원 벤치나 현판 등 목공 관련 사업을  
의뢰하기도 하고요. 연암서당골이 대구 북구의 제1호 도시재생  
지역인 만큼, 선도사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다양한 지원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리사회적협동조합이 마련해야 하며, 자생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마을목공소는 목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제품을 주문  
받아 제작·판매하기도 합니다. 마을카페도 음료뿐 아니라  
샌드위치 등 새로운 메뉴 개발을 하고 있으며 배달까지 고려  
하고 있습니다.”(서상우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부이사장)  
연암서당골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행정과 협력해  
다양한 공모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문화체  
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 관광두레  
사업이다. 지역 관광문화자원과 연계하는 사업을 고민하고

있던 북구청에 주민들이 먼저 관광두레사업을 해보자고 제  
안하면서 지자체가 지원서를 제출했고, 연암서당골과 북구  
8경 등을 포함한 북구 지역이 2021년 관광두레로 최종 선정  
되었다. 그 결과 주민사업체를 구성해 연암서당골 문화센터  
와 연암카페, 목공소 등과 산격동의 문화역사자원을 연계하  
는 관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마을주인이 마을해설사  
가 되어 안내하는 여행 프로그램이나 외부 관광객들을 대상  
으로 하는 목공 체험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구청 교  
육청소년과와 함께 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인 ‘행복북구 야  
식당 감성 목공예’ 강좌도 마을목공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주민들도 적극적이지만, 연암서당골 도시재생사업이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곳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선진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행정 역시 적극적으로 움직  
이고 있습니다. 특히 부처 간, 부서 간 협업이 잘 이뤄지고 있  
습니다. 관광과와 협력을 해서 관광두레사업을 진행하고, 교  
육청소년과와 협력해서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  
습니다. 지역자원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  
도록 민관이 활발하게 협력하는 것이 연암서당골의 자랑입  
니다.”(신창섭 센터장)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한 사업도 진행 중이다. 구암서원에서  
는 ‘구석구석 현지인다운 대구 한주살이 여행’이 진행되고  
있는데, 구암서원과 협업하여 대구 한주살이 체험 길잡이 강  
사로 주민들이 참여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영남선비문화수련원과 MOU협약을 체결하고 목공체험 프  
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연암서당골 문화센터를 단순히 하나의 건물로만 보면 안 된  
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곳곳에 숨어 있는 400년이 넘는 역사  
적, 문화적 자원과 지자체의 다양한 사업, 마을카페와 목공  
소, 이역소 등 연암서당골 주민들이 만들고 운영하는 공간들,  
주민들의 적극적 활동이 모두 합쳐져 완성된 공간이라고 생  
각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생활SOC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요?”(신창섭 센터장)

지역에서 오래 살았던 주민들이 먼저 지역을 위해 움직이고  
행정의 적절한 지원과 협력이 뒷받침되어 완성된 복합문화  
공간 연암서당골 문화센터. 앞으로 이곳에서 진행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은 물론 지역 경제에 활기를 돌게 할, 마을사  
업들의 모습이 궁금할 수밖에 없다.





생활 속(SOC)!  
행복 속!



# 2021 생활SOC 공모전 우수사례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은 2021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021 생활SOC 아이디어·우수사례·홍보영상 공모전]을 진행했다. 공모 분야는 아이디어, 우수사례, 동영상의 3개 부문으로 분야별로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으로 나눠 시상이 진행된다. 생활SOC 참여 우수사례 장려상으로 꼽힌 7곳을 소개한다.  
※대상, 최우수상 그리고 우수상을 수상한 3곳은 본서에서 소개한 울산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 위스테인별내 커뮤니티센터, 외골문화회관이다.



##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공동체 공간을 활용한 공공형 아동 놀이시설

온마을아이맘센터 아동 실내스포츠 체험시설



‘온마을아이맘센터 아동 실내스포츠 체험시설’은 대구시 남구 최초의 아동 스포츠 놀이시설이다. 남구의 주민커뮤니티 공간이자 ‘다함께 돌봄센터’가 운영중인 온마을아이맘센터는 건물 2층을 리모델링하여 2021년 6월 25일 ‘아동 실내스포츠 체험시설’을 개소했다.

그간 지역 주민들은 아이들을 위한 실내놀이시설이 없어, 키즈카페 같은 실내놀이시설을 찾아 다른 지역을 찾아가야만 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지역에 유·아동의 체력측정 및 스포츠 체험이 가능한 시설을 조성하고자 구청은 ‘2019년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아동 실내스포츠 체험시설을 조성하였다. 공간은 놀이형식을 도입한 인터넷 기반의 ‘체력측정실’과 클라이밍, 짚라인, 점핑, 그물다리 등 신체활동 중심의 ‘놀이실’, 아이들의 휴식 및 보호자 대기 공간인 ‘테라스’로 구성되어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오픈 이후 7개월간 월평균 500명의 이용자가 다녀갈 정도로 학부모와 아이들의 호응도와 만족도가 높다. 구청은 아동스포츠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높이고자 전문 유아체육지도자격을 보유하고 실제 아동을 지도해본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하여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지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 돌봄센터 등의 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아동 스포츠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아동스포츠 시설 인프라가 부족한 남구에서 아동

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온마을아이맘센터 실내스포츠 체험시설은 남구를 대표하는 공공형 놀이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위치 |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38길 13-2

연락처 | 053-664-2536(이서현 주무관)

## 경기도 과천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공동 체육공간

과천시민회관 ‘통합수중운동교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 레인을 제공해달라”는 과천시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과천시민회관 수영장내 ‘통합수중운동교실’이 조성되었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과천시민회관 수영장을 중심으로 체육시설을 개선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다. 또한 지역 내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전문성을 살린 역할 분담으로 시너지를 내고 있다. 수영장 시설 개선은 2018년 7월부터 과천시장애인복지관,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부모모임 등 여러 단체와 협업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장애인 입수용 리프트 2대’, ‘입수용 휠체어 2대’ 등 다양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하였다. 과천도시공사에서 장애인 전용레인 제공,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 및 유지를 맡고, 과천장애인복지관에서 전문지도자 배치, 이용자 상담 등을 맡는 등 다양한 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어 전문성 있고 지속적인 장애

인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유지가 되도록 운영하고 있다. 과천시장애인체육회와 협업으로 장애인생활체육 전문지도자를 지원받고 과천시와 장애인스포츠바우처 프로그램을 협업하여 추진하는 것은 물론 특수체육 전문가 및 실무자들의 자문을 받아 ‘통합형 수중운동교실’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중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수영하고 수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통합수중교실, 차별 없는 따뜻한 체육환경을 만든 과천시의 값진 시도다.

위치 | 경기도 과천시 통영로 5 과천시민회관

연락처 | 02-500-1340(정행곤 팀장)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이 교류하는 복합문화공간

달서다문화가족 작은도서관



달서다문화가족 작은도서관은 대구광역시에서 다문화 인구가 가장 많은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다문화도서관이다. 달서구성서종합사회복지관에 있던 낡은 도서관이 ‘생활SOC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새롭게 바뀐 작은도서관에서는 다문화가정들이 지역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주민, 선주민 독서모임’, ‘결혼이주민 모국문화 민화교육’, ‘지역 아동문화다양성 이해교육’, ‘온라인 다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정과 지역주민의 교류

를 촉진하는 것은 물론 그들이 한국생활에 잘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지역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았다.

지역주민의 도서관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달서구성서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 수도 증가하는 시너지 효과가 나고 있다. 도서관에 왔다가 복지관의 ‘한국어배움터’, ‘한국 요리교실’에 참여하면서 복지관을 통해 다문화 공동체가 형성되기도 하는 등 좋은 사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달서다문화가족작은도서관이 가져온 지역공동체의 건강한 변화를 인정받아 달서구성서종합사회복지관은 2021년 가정의 달 기념 ‘가족정책 유공’ 정부포상에서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로 56 3층

연락처 | 053-667-4812(송정순 주무관)

## 전라남도 목포 아파트로 들어온 학교 밖 돌봄교실

내집앞 맘(Mom)편한 돌봄교실&내안에(愛) 돌봄교실



‘내집앞 맘편한 돌봄교실(용해동)’과 ‘내안에 돌봄교실(옥암동)’은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이 주도하여 운영중인 ‘학교 밖 돌봄교실’이다. 목포 신도심에 학생들이 몰리면서 과밀학급 현상이 나타나 유휴교실이 부족하자, 이로 인한 돌봄 수요를 해소하고자 교육지원청이 적극 나섰다.

교육지원청은 지역민과 지역사회 전문가, 시(도)의원, 학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민관이 협력하는 돌봄교실을 개발하고자 했다. 교실에 필요한 도구 및 물품 등은 지역 내 폐교 예정 학교의 기자재, 교구 등을 활용하여 예산 절감의 효과도 보았다. 각각의 돌봄교실이 조성된 곳은 아파트 유휴공간(경로당)으로,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해당 아파트 단지 내 전문가격을 가진 학부모를 강사로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및 돌봄교실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었다. 해당 교실에서는 ‘창의블럭’, ‘놀이수학’ 등 초등 놀이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부모 알리미’나 ‘출결 알리미 서비스’, ‘교육지원청 주관 동행 지도’ 등도 수행하여 학부모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그 결과 2020년 학교 밖 돌봄교실 운영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 및 ‘매우 만족’인 응답자가 99.3%를 기록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위치 |

내안에 돌봄교실: 전남 목포시 삼향천로 159,

한국아델리움 3차 아파트 경로당

내집앞 맘편한 돌봄교실: 전남 목포시 용해자구로 88번길 7,

천년가맘스 카운티 아파트 경로당

연락처 | 061-280-6475(김용호 실무사)

## 전라남도 순천시 지역주민과 예술가를 잇는 생활문화예술공간

### 장안창작마당

2017년 7월 22일 문을 연 장안창작마당은 지역 커뮤니티 중심의 복합문화예술공간이다. 순천시 원도심에 문화예술을 매개로 활력을 불어넣고자 ‘융복합 창작예술 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장안창작마당은 원래 40년간 식당으로 사용된 건물을 리모델링한 것이다. 공간 조성 단계부터 주민과 문화기획자, 행정이 함께 논의하여 ‘지역 커뮤니티 아트’를 실행하는 예술공간을 만들고자 목표를 세웠고, 주민공모를 통해 건물 명칭도 정했다. 그 결과 지상 3층 규모의 건물로 ‘장안창작마당’이 탄생했다.

1층에는 주민들이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각종 모임을 열 수



있는 ‘공유부엌’과 ‘장안공방’이 운영된다.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방에서는 목공 수업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 열린다. 2층은 작가들의 창작활동이 이뤄지는 작업실이다. 공간 내 갤러리에서는 해마다 전시회도 열린다. 이곳에서 예술가와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만나고 소통한다. 촘촘해진 예술가와 주민들의 관계망을 통해 지역 예술 생태계가 더욱 확장되고 있다. 마당 뒤뜰에는 여행자들을 위한 ‘장인여인숙’도 운영된다. 숙박료는 순천 여행에서의 감상을 담은 콘텐츠로 받는다. 올해로 5년째, 지역 예술인들과 주민들의 쉼터이자 창작예술 활동이 이뤄지는 거점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장안창작마당은 순천의 문화예술계와 지역주민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위치 | 전라남도 순천시 금곡길 43

연락처 | 061-749-5540(황학중 팀장)

##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힐링·돌봄·복지 시설

### 건강힐링문화관

양천구 건강힐링문화관은 건강·힐링·돌봄·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이다. 지역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성됐다. 지하 2층과 지상 3층으로 구성된 건강힐링문화관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힐링센터와 실내체육관을 중심으로 다양



한 돌봄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구코트, 배구코트 등이 설치된 실내체육관에서는 라인댄스, 필라테스, 어린이발레 등의 스포츠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1층 어린이집과 우리아이키움센터에서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2층 모자건강증진센터에서는 ‘임산부 산전·산후 건강관리 서비스’, ‘임신·출산·육아 관련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영유아의 성장단계별 건강 상태와 정보를 측정할 수 있는 ‘아이원센터’와 ‘놀이체험형 어린이 건강체험관’도 운영중이다. 3층 힐링센터에서는 심리학, 명상, 예술치료 분야 전문가가 진행하는 전문 힐링 프로그램과 심리상담이 진행되는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주민의 정신 건강 역시 적극 챙기고 있다.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대를 위한 생애주기별 건강 및 돌봄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건강힐링문화관은 양천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SOC 시설이라 할 수 있다.

위치 |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83길 54

연락처 | 02-2084-5485(권정옥 센터장)

## 경기도 하남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라이브(Live) 공간 플랫폼

### 생활문화센터 하다

생활문화센터 하다는 하남시민의 문화예술 공유공간으로 2021년 1월 문을 열었다. 하남시 도시재생과가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이용도가 낮아진 시청앞 지하보도의 일부를



활용해 지상 1층 2개동 건물과 지하보도 일부에 다목적홀과 모임방, 전시실 등을 조성했다.

하다는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취미 및 예술 동아리 활동 등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생활문화센터이면서 도시재생 거점공간, 신도시 문화공간 등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언택트 운영방식’을 도입하여 눈길을 끈다. 시민들은 공간 예약부터 개방에 이르는 전 과정을 비대면(웹페이지, 온라인 메신저, 스마트도어락 등)으로 진행하게 된다.

오픈 이후 하다에서는 3~5월 동안 ‘시민참여형 생활문화 개방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거주민 및 직장인들의 취미·취향을 발굴했고, 생활문화 교류 플랫폼 강화를 위해 동호회 발굴·홍보를 진행한 결과, 통기타, 시사영어, 독서, 캘리그라피, 라인댄스 등 무려 22개 모임방이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5~10월 동안 ‘2021 생활문화센터 운영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을 운영하며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만나고 있다.

하다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생활문화센터 공간을 기반으로 가족, 이웃, 마을이 이어지는 공동체를 확장해나가는 ‘문화 민주주의 실현’을 비전으로 삼고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주체적 지역문화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위치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8(시청 옆 경관광장),

신장도 538 지하보도

연락처 | 031-790-6778(정혜연 주무관)



생활SOC 주민참여 선도사례집 3편  
**살고 있는 동네를 살고 싶은 동네로**

**발행일** 2021년 11월 30일  
**발행처**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발행인** 구윤철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홈페이지** [www.lifesoc.go.kr](http://www.lifesoc.go.kr)  
**대표전화** 044-200-2906

**기획** 생활SOC추진단  
**제작** 소소박스